

2026 베트남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가. 정부 현황 | 09 |
| 나. 주요정책 및 규제 현황 | 13 |
| 3. 주요 이슈 Pick | 18 |
| 가. (경제·산업)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 18 |
| 나. (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물류 변화 | 20 |
| 다. (환경·에너지) 녹색 전환과 에너지 믹스 재설계 | 22 |
| 라. (소비재) 1억 소비시장의 질적 변화 | 24 |

II. 시장 분석



| | |
|--------------|----|
| 1. 시장 현황 | 27 |
| 가. 시장 특징 | 27 |
| 나. 무역 | 34 |
| 다. 산업 | 40 |
| 라. 투자 | 41 |
| 2. 유망 산업 | 49 |
| 가. 전기·전자 | 49 |
| 나. 에너지 | 51 |
| 다. 바이오·의료 | 55 |
| 3. 협력 기회 | 59 |
| 가. 통상·G2G | 59 |
| 나. 프로젝트 | 61 |
| 다. 공급망(자원개발) | 67 |

III. 진출전략



| | |
|--------------------------------------|----|
| 1. PEST/SWOT 분석 | 69 |
| 2. 진출전략 | 71 |
|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 81 |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 83 |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84 |
|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85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18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요약)

- (하락) 2025년 6.5%, 2026년은 2025년보다 하락한 6.0%대 성장 전망
 -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교역 리스크, 그에 따른 수출·FDI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주요 기관들은 베트남의 2025~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 2024년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7%를 기록(베트남 통계총국)

기관별 2025~2026년 베트남 경제성장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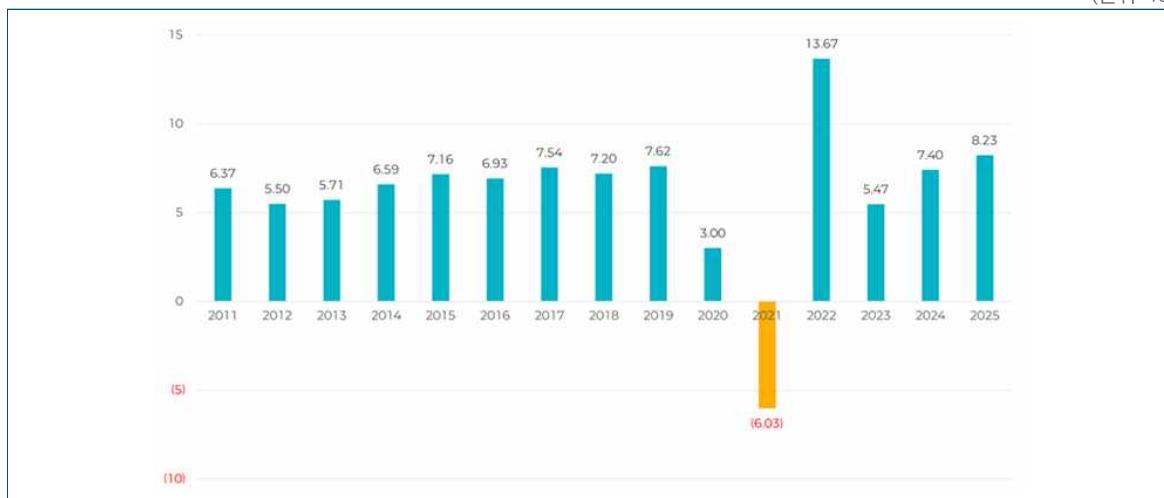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ADB | IMF | OECD | World Bank | 평균 |
|----------|----------|----------|----------|------------|-----|
| 2025년 전망 | 6.7 | 6.5 | 6.2 | 6.6 | 6.5 |
| 2026년 전망 | 6.0 | 미발표 | 6.0 | 6.1 | 6.0 |
| 발표 시기 | 2025년 9월 | 2025년 9월 | 2025년 6월 | 2025년 9월 | |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2011~2025년 베트남의 1~3분기 경제성장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VNExpress

- 다만, 베트남 통계총국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회복과 서비스업 호조로 2025년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
 - * ADB, IMF, OECD, World Bank의 기준 전망치는 해당 통계총국 발표 이전에 제시된 것으로, 향후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음

□ (호재 요인)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국가 인프라 프로젝트·행정 효율화

- 상대적으로 높은 재무 건전성
 -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부채 비율이 아세안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상호관세 등 외부 충격을 단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베트남 정부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관리 강화, 금융 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재무 전반의 리스크 완화 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물류 중심의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북남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재추진 검토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전력망 강화, 중소형 지역 기반 시설 개선 등도 병행되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 효율화
 - 2025년 초 국회는 부처 통합, 행정 단위 축소, 공직자 감축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승인
 - 불필요한 기관 감축 및 정책 집행 속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리스크 완화 기대

□ (부진 요인) 경제 냉전 속 성장 제약

-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여파로 베트남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 확대
 - 미국은 베트남 수출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하며, 상호관세로 인해 전자·의류·기계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對미 수출경쟁력 약화
 - 중국산 부품 포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로 중국계 자본(중국, 싱가포르, 홍콩)의 對베트남 투자 축소 또는 제3국 이전 가능성 상존
 - * 환적 기준은 미확정이나, 단순 조립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부품 포함 시 40% 관세 부과 가능성 존재
- 미·중 디커플링, EU 공급망 실사 규정 등으로 중간재 확보·인증 부담 가중

□ 주요 경제지표

| 주요지표 | 단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추정) | 2026년 (전망) |
|--------------|----------|----------|----------|----------|----------|----------|----------|---------------|---------------|
| 인구 | 백만 명 | 96.48 | 97.58 | 98.51 | 99.46 | 101.31 | 101.30 | 102.16 | 102.94 |
| 명목 GDP | 십억 달러 | 331.82 | 346.31 | 370.08 | 411.07 | 433.01 | 459.47 | 490.97 | 519.00 |
| 1인당 명목 GDP | 달러 | 3,419.10 | 3,548.89 | 3,756.89 | 4,132.93 | 4,316.74 | 4,535.76 | 4,805.84 | 5,041.89 |
| 실질 성장률 | % | 7.4 | 2.9 | 2.6 | 8.5 | 5.1 | 7.1 | 5.2 | 4.0 |
| 실업률 | % | 2.2 | 2.5 | 3.2 | 2.3 | 2.3 | 2.2 | 2.0 | 2.0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8 | 3.2 | 1.8 | 3.2 | 3.3 | 3.6 | 2.9 | 2.5 |
| 재정수지(GDP 대비) | % | -0.4 | -2.9 | -1.4 | 0.7 | -2.4 | -1.6 | -3.4 | -3.2 |
| 총 수출(a) | 백만 달러 | 264,267 | 282,629 | 336,167 | 371,715 | 354,721 | 405,935 | - | - |
| (對韓 수출)(b) | 백만 달러 | 21,072 | 20,579 | 23,966 | 26,725 | 25,942 | 28,444 | - | - |
| 총 수입(a) | 백만 달러 | 253,393 | 262,691 | 332,843 | 359,575 | 326,358 | 380,991 | - | - |
| (對韓 수입)(b) | 백만 달러 | 48,178 | 48,511 | 56,729 | 60,964 | 53,480 | 58,323 | - | - |
| 무역수지(a) | 백만 달러 | 10,874 | 19,938 | 3,324 | 12,140 | 29,363 | 24,944 | - | - |
| 경상수지 | 백만 달러 | 1,247.7 | 1,506 | -815 | 140.4 | 2,557.5 | 2,804.7 | 1,571 | 975.9 |
| 환율(연평균)(c) | 현지국/US\$ | 23,054 | 23,209 | 23,161 | 23,277 | 23,797 | 24,170 | 24,919 (d) | 26,100 (e) |
| 해외직접투자 | 억 달러 | 5.29 | 8.20 | -3.58 | 5.99 | 4.23 | 7.22 | - | - |
| 외국인직접투자 | 억 달러 | 389.52 | 310.45 | 388.54 | 292.88 | 393.90 | 382.26 | - | - |

주: (a) 베트남 관세총국(GDC), (b) 한국무역협회, (c) 베트남 통계총국(GSO), (d) 베트남 중앙은행(SBV), (e) UOB(대화은행) 전망치
외에는 모두 IMF 통계 인용. '24년 연평균 환율의 경우 통계총국(2025년 7월) 추정치. '25년은 월별(1~8월) 밀일 고시환율의 평균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 2025), GDC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025년은 2024년 7.1%보다 하락한 6.5%대 성장 전망
 -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교역은 확대되고 산업생산과 내수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의존적 구조와 대외불확실성으로 성장세 둔화 가능성도 제기됨
 - * 연도별 성장률 : ('21년) 5.8% → ('22년) 8.0% → ('23년) 5.1% → ('24년) 7.1%
- (소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관광 수요가 회복세
 - 2025년 1~9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으며, 9월 한달간은 전월 대비 0.4% 상승. 교육·주거·식품·교통 등 10개 주요 품목군이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
 - * 연도별 CPI : ('21년) 1.8% → ('22년) 3.2% → ('23년) 3.3% → ('24년) 3.6%
 - 같은 기간 소매·서비스 매출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관광(20.5%), 숙박·외식(14.8%)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임
 - * 2025년 1~9월 외국인 관광객은 1,5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

- (민간투자) 신규 기업 증가세 뚜렷하나, 폐업도 확대

- 2025년 1~9월 신규 설립 및 영업 재개 기업은 총 23만 1,337개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 했으며, 이 중 신규 설립 14만 5,000개(+18.9%), 영업 재개 8만 6,400개(+41.3%)로 기업활동 회복세를 반영
- 같은 기간 폐업 기업은 약 17만 5,000개로 이 중 9만 9,500개가 영업을 임시 중단했고, 5만 3,200개가 해산을 신청했으며 2만 2,300개는 해산 절차를 완료하는 등 구조조정 흐름도 지속

- (산업생산) 제조업 중심 호조세 유지

- 2025년 1~9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연도별 IIP 증감률 : ('21년) 4.7% → ('22년) 7.4% → ('23년) 1.5% → ('24년) 8.4%

- 같은 기간 실업률은 2.2%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9.0%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상승

- (대외교역) 교역은 두 자릿수 성장세, 무역수지 흑자는 축소

- 2025년 1~9월 총 교역액은 6,8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성장, 수출액 3,487억 4,000만 달러(+16.0%), 수입액 3,319억 2,000만 달러(+18.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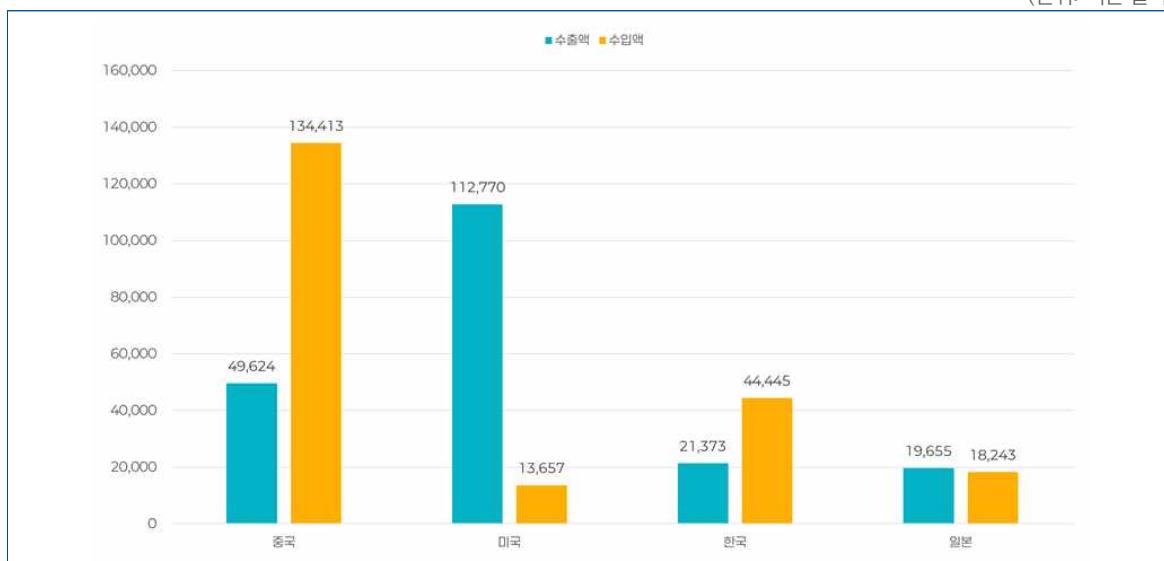
* 연도별 교역규모(억 달러) : ('21년) 6,691 → ('22년) 7,302 → ('23년) 6,810 → ('24년) 7,863

- 무역 수지는 16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축소

-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1,128억 달러)이며, 수입은 중국(1,344억 달러)

〈2025년 1~9월 베트남의 주요국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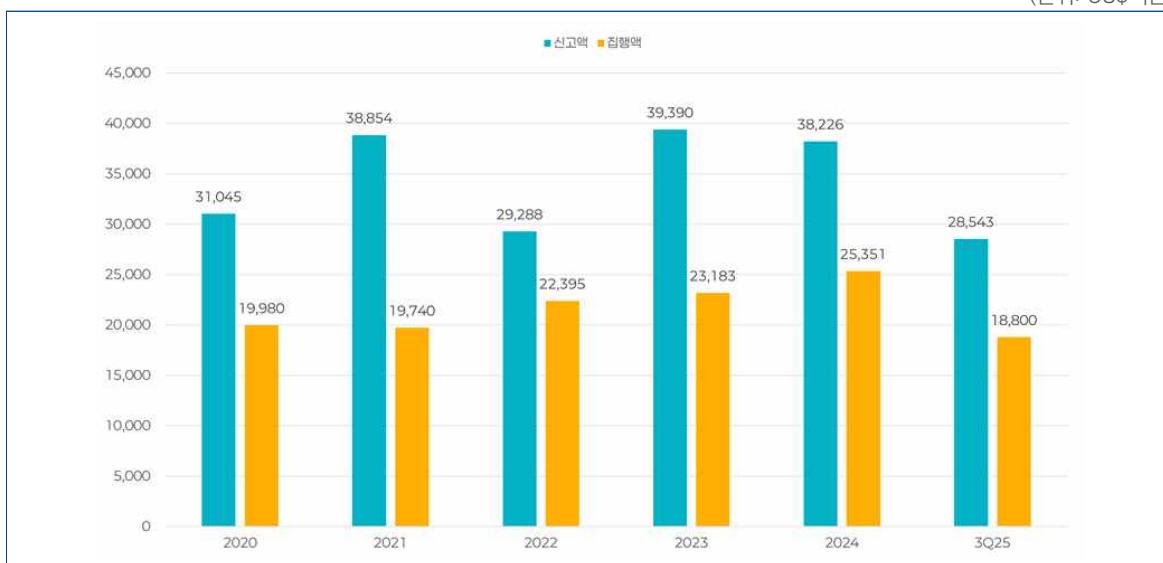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투자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제조·부동산 중심

- 2025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85억 4,000만 달러(+15.2%), 집행액 188억 달러(+8.5%)로 안정적 증가세 유지 중이며, 제조업과 부동산 중심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편

〈2020~2025년 3분기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및 집행액〉

(단위: US\$백만)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 최근 5년간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중국계 자본 유입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중국·홍콩은 점진적 증가, 일본·대만은 2024년 이후 감소세

- (투자 진출) 아시아 인접국, 자원·에너지 분야 중심 확대

- 2025년 1~9월 베트남의 해외투자는 8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배 증가
* 신규 투자 7억 9,000만 달러(134건), 증액 투자 1억 3억 달러(23건)
- 주요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46.9%), 필리핀(10.9%), 인도네시아(7.6%), 독일(6.0%)순, 주요 산업으로는 전기, 가스, 온수, 증기, 냉방의 발전 및 유통이 전체 해외투자의 40.3%로 큰 비중을 차지, 그 뒤를 이어 도소매 및 차량 수리 14.3%, 운송 및 창고업 12.9% 등

2. 정치(정책) 환경

- (정치) 2026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국가 운영의 주요 분기점
- (행정) 부처·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효율성 제고, 단기적 혼선 발생 우려
- (제도) 데이터 기반 투명성 강화, 내국수출입 제도 법제화 등 경영 환경 개선 집중
- (성장) 민간 주도 체제를 공식화, 대규모 국책사업까지 민간에 개방
- (미래) 첨단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및 인센티브 마련, 글로벌 허브 도약 추진

가. 정부 현황

□ 정치 : 2026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정치 재편의 주요 분기점

- 정치조직 및 특성
 - (체제)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제. 집권당은 베트남 공산당
 - (공산당) 행정·군사·사법·입법·관료 기구 등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는 정치 조직으로, 국가·사회 전반은 물론 국회·정부 활동에도 지배적 영향력 행사
 - (전당대회) 5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의사결정 행사로, 당의 전략적 정책 노선과 규약을 채택·수정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
- 정치 핵심 지도부

베트남 정부 핵심 5인(2025년 9월 기준)

서기장(서열 1위) 국가주석(서열 2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 상임서기(서열 5위)



| | | | | |
|-----------------|------------------------|----------------------------|----------------------------|------------------------|
| To Lam (또 럼) | Luong Cuong (르엉 끄엉) | Pham Minh Chinh (팜 민 찐) | Tran Thanh Man (쩐 타잉 만) | Tran Cam Tu (쩐 깜 뚜) |
|-----------------|------------------------|----------------------------|----------------------------|------------------------|

자료: 베트남 정부포털, 제14차 전당대회 홈페이지(V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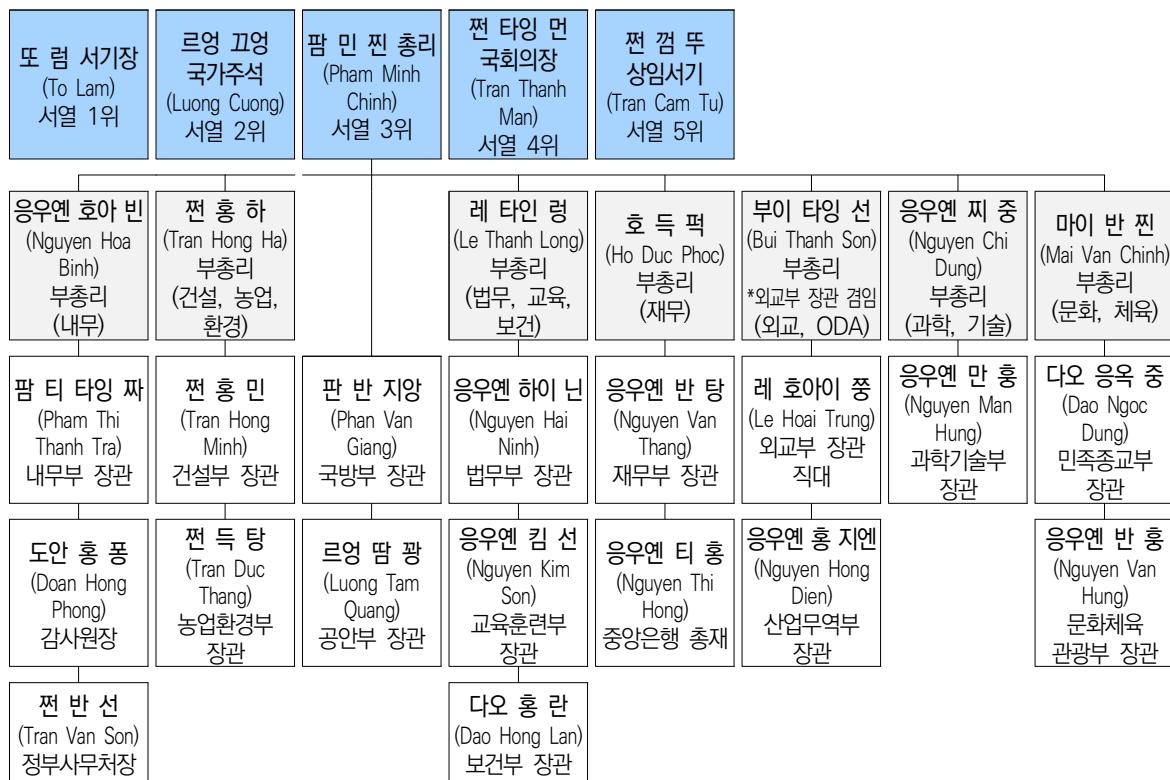
- (서기장) 또 럼(To Lam). 정치 서열 1위, 공산당 당수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당 조직 총괄
- (국가주석) 르엉 끄엉(Luong Cuong). 정치 서열 2위,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총리) 팜 민 찐(Pham Minh Chinh). 정치 서열 3위, 중앙정부 및 지방인민위원회 지도
- (국회의장) 쩐 타잉 먼(Tran Thanh Man). 정치 서열 4위, 입법부 수장
- (상임서기) 쩐 껌 뚜(Tran Cam Tu). 정치 서열 5위, 당-국가기관 조율 담당
- 권력의 집중과 혁신을 통한 국가 역량 강화 추진
 - 또 렘 서기장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국제 통합, △민간 경제 발전, △제도 혁신 등 4대 핵심 기둥 결의를 추진
 - 권력 분산보다 집중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2025년 9월 정치 핵심 지도부를 기준 4주 체제(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에서 상임서기를 추가한 5주 체제로 확대
 - * 관련 규정 : Decision No.368-QD/TW('25년 9월 8일)
 - 당 지도력 강화를 위해 최고 지도기구인 정치국을 확대하고(16 → 17~19명), 전당대회 대표자 구성 방식도 중앙 주도로 바뀔 전망

□ 중앙정부 : 부처 통폐합(22 → 17개) 및 부총리 증원(5 → 7명)을 통한 효율화

- 행정부 구성
 - (구성) 총리 1명, 부총리 7명, 장관급 각료 17명(14개 부처 + 3개 장관급 기관)

〈베트남 정부 부처 조직도(2025년 9월 기준)〉



자료: 각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정부 기관명 및 홈페이지 주소(2025년 9월 기준)

| 국문 기관명 | 영문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한국 유관 부처명 |
|---------|--|------------------|-----------|
| 국방부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 mod.gov.vn | 국방부 |
| 공안부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 bocongan.gov.vn | 행정안전부 |
| 외교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gov.vn | 외교부 |
| 내무부 | Ministry of Home Affairs | moha.gov.vn | 행정안전부 |
| 법무부 | Ministry of Justice | moj.gov.vn | 법무부 |
| 재무부 | Ministry of Finance | mof.gov.vn | 기획재정부 |
| 산업무역부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oit.gov.vn | 산업부 |
| 농업환경부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mae.gov.vn | 농림축산식품부 |
| 건설부 | Ministry of Construction | moc.gov.vn | 국토교통부 |
| 문화체육관광부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bvhttdl.gov.vn | 문화체육관광부 |
| 과학기술부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mst.gov.v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교육훈련부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 moet.gov.vn | 교육부 |
| 보건부 | Ministry of Health | moh.gov.vn | 보건복지부 |
| 민족종교부 | Ministry of Ethnicity and Religion Affairs | cema.gov.vn | - |
| 정부사무처 | Government Office | vccp.chinhphu.vn | 국무조정실 |
| 중앙은행 | State Bank of Vietnam | sbv.gov.vn | 한국은행 |
| 감사원 | Government Inspectorate | thanhtra.gov.vn | 감사원 |

자료: 각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정부 중앙부처 개편 사항

| 기존 부처·기관 | 신설(개편) 부처 |
|--|---|
| 기획투자부(MPI) | 재무부(MOF) |
| 재무부(MOF) | |
| 건설부(MOC) | 건설부(MOC) |
| 교통부(MOT) | |
| 농업농촌개발부(MARD) | 농업환경부(MAE) |
| 천연자원환경부(MONRE) | |
| 정보통신부(MOIC) | 과학기술부(MOST) |
| 과학기술부(MOST) | |
| 노동보훈사회부(MOLISA) | 내무부(MOHA) |
| 내무부(MOHA) | |
| 소수민족위원회 | 민족종교부(Ministry of Ethnicity and Religion) |
| 내무부 内 종교 담당 부서 | |
|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무역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8개 부처는 유지 | |

자료: Resolution No.176/2025/QH15

□ 지방자치 : 행정구역 간소화(3 → 2단계, 63 → 34개)를 통한 내실화

• 행정조직 슬림화를 통한 자원 집중 도모

- 행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광역 단위 통합을 추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략적 거점 중심의 발전 구도 조성 노력

* 광역 단위(중앙직할시·성), 기초 단위(시진·사·방)만 남기고 중간 단위(군·현·시사) 폐지

- 통합 행정체계는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나, 단기적으로 세제·절차 혼선과 지방정부 인력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 필요

* ‘중앙직할시·성’, ‘시진·사·방’급별로 집행위원회(당), 인민위원회(행정), 인민의회(법) 운영

베트남 광역 행정구역 통폐합 현황

| 개편 이후 | 개편 이전 | 행정중심지 |
|-----------------------|---|-------|
| 호치민(Ho Chi Minh City) | 바리아-붕따우(Ba Rai-Vung Tau)+빈종(Binh Duong)+호치민(HCMC) | 호치민 |
| 하노이(Ha Noi) | - | - |
| 안지양(An Giang) | 끼엔지양(Kien Giang)+안지양(An Giang) | 끼엔지양 |
| 하이퐁(Hai Phong) | 하이즈엉(Hai Duong)+하이퐁(Hai Phong) | 하이퐁 |
| 동나이(Dong Nai) | 빈프억(Binh Phuong)+동나이(Dong Nai) | 동나이 |
| 닌빈(Ninh Binh) | 하남(Ha Nam)+남дин(Nam Dinh)+닌빈(Ninh Binh) | 닌빈 |
| 동탑(Dong Thap) | 띠엔지양(Tien Giang)+동탑(Dong Thap) | 띠엔지양 |
| 타인호아(Thanh Hoa) | - | - |
| 빈롱(Vinh Long) | 벤째(Ben Tre)+짜빈(Tra Vinh)+빈롱(Vinh Long) | 빈롱 |
| 껀터(Can Tho) | 속짱(Soc Trang)+하우지양(Hau Giang)+껀터(Can Tho) | 껀터 |
| 푸터(Phu Tho) | 화빈(Hoa Binh)+빈푹(Vinh Phuc)+푸터(Phu Tho) | 푸터 |
| 럼동(Lam Dong) | 닥농(Dak Nong)+빈투언(Binh Thuan)+럼동(Lam Dong) | 럼동 |
| 응에안(Nghe An) | - | - |
| 박닌(Bac Ninh) | 박장(Bac Giang)+박닌(Bac Ninh) | 박장 |
| 자라이(Gia Lai) | 빈딘(Binh Dinh)+자라이(Gia Lai) | 빈딘 |
| 흥옌(Hung Yen) | 타이빈(Thai Binh)+흥옌(Hung Yen) | 흥옌 |
| 닥락(Dak Lak) | 푸옌(Phu Yen)+닥락(Dak Lak) | 닥락 |
| 떠이닌(Tay Ninh) | 롱안(Long An)+떠이닌(Tay Ninh) | 롱안 |
| 다낭(Da Nang) | 꽝남(Quang Nam)+다낭(Da Nang) | 다낭 |
| 까마우(Ca Mau) | 박리에우(Bac Lieu)+까마우(Ca Mau) | 까마우 |
| 카인호아(Khanh Hoa) | 닌투언(Ninh Thuan)+카인호아(Khanh Hoa) | 카인호아 |
| 꽝응아이(Quang Ngai) | 꼰뚱(Kon Tum)+꽝응아이(Quang Ngai) | 꽝응아이 |
| 꽝찌(Quang Tri) | 꽝빈(Quang Binh)+꽝찌(Quang Tri) | 꽝빈 |
| 뚜엔꽝(Tuyen Quang) | 하지양(Ha Giang)+뚜엔꽝(Tuyen Quang) | 뚜엔꽝 |
| 타이응우옌(Thai Nguyen) | 박깐(Bac Kan)+타이응우옌(Thai Nguyen) | 타이응우옌 |
| 라오까이(Lao Cai) | 이엔바이(Yen Bai)+라오까이(Lao Cai) | 이엔바이 |
| 하띤(Ha Tinh) | - | - |
| 꽝닌(Quang Ninh) | - | - |

| 개편 이후 | 개편 이전 | 행정중심지 |
|-----------------|-------|-------|
| 후에(Hue) | - | - |
| 선라(Son La) | - | - |
| 디엔비엔(Dien Bien) | - | - |
| 까오방(Cao Bang) | - | - |
| 라이찌우(Lai Chau) | - | - |

주: 나열 순서는 광역 행정구역별 인구수 순

자료: Resolution No.60-NQ/TW

나. 주요정책 및 규제 현황

□ 민간 경제 중심 성장 및 거버넌스 혁신 추진

- ‘민간 주도, 국영 지원’ 체제 공식화

* 관련 규정 : Resolution No.68-NQ/TW(‘25년 5월 4일)

- (성장목표) 자국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를 2030년 55~58%, 2045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등록 기업 수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수립
- (정책전환) 민간부문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공식화하고, 기존 국영기업 중심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 명시

* 북남고속철 등 대규모 국책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민간 추진으로 변경

- (공정경쟁) 기업 유형(국영·외국·민간)에 따른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토지·자본 등 핵심 경제자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추진

- (기업육성)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가능한 민간 대기업 약 20개를 육성하는 ‘국가 챔피언’ 이니셔티브 출범

* 자국 민간기업에 신용 우대, 공공조달 우선권 부여, 인프라 사업 개방 등 전방위적 지원 추진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부 시스템 구축

- (로드맵 강화) 기존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대도약’을 재정비하고,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과제 및 로드맵 보강

* 관련 규정 : Resolution No.71/NQ-CP(‘25년 4월 1일)

- (행정 효율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행정 절차 개혁 및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품질 제고 추진

* 관련 규정 : Resolution No.214/NQ-CP(‘25년 7월 23일)

- (데이터 통합) 국가데이터센터(NDC) 데이터 전략을 승인하고, 범정부 데이터 허브 기반의 수집·통합·관리·개방 체계 확립

* 관련 규정 : Resolution No.1751/QD-TTg(‘25년 8월 18일)

* 국토계획 등 모든 계획자료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데이터화를 의무화해 정책 투명성 및 국민 접근성 강화(Decision No.06/QD-TTg(‘25년 1월 2일))

□ 첨단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투자 유치 강화

- 반도체·AI,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 (국가전략) 로봇, AI, 반도체 등 11개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적 대도약을 추진

베트남 전략기술 및 전략기술 제품군 지정 현황(‘25년 6월 12일 발표)

| 연번 | 전략기술 | 전략기술 제품군 |
|----|-----------------------|---------------------------|
| 1 |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가상/증강현실 | 베트남어 대형 언어 모델 |
| | | 가상 비서 |
| | | 전문 인공지능 |
| | | 분석 인공지능 |
| | | 디지털 트윈 |
| 2 |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 메타버스 |
| | | 클라우드 서비스 |
| | | 양자컴퓨팅 및 양자통신 서비스 |
| 3 | 블록체인 기술 | 대규모 데이터 센터 |
| | | 디지털 자산·디지털 화폐·암호화폐 |
| | |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망 |
| | | 원산지 추적 시스템 |
| | | O-RAN 무선 접속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
| 4 | 차세대 이동통신망(5G/6G) | 5G/6G 핵심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
| | | 고속 전송(backhaul) 장비 및 솔루션 |
| | | 자율 이동 로봇 |
| 5 | 로봇 및 자동화 기술 | 산업용 로봇 |
| | | 농·임·수산물 정밀 가공 라인 |
| | | 수확 후 품질 보존·감독 시스템 |
| 6 | 반도체 칩 기술 | 전문칩, AI칩, IoT칩 |
| | | 차세대 백신 |
| 7 | 첨단 생명공학 기술 | 유전자 치료(의료·농업) |
| | | 세포 치료(줄기세포·면역세포 치료 등) |
| | | 소형 안전 핵반응기 |
| 8 | 에너지 및 첨단 소재 기술 | 리튬이온·전고체·연료·전해질 배터리 |
| | | 첨단 소재 |

| 연번 | 전략기술 | 전략기술 제품군 |
|----|----------------|--|
| 9 | 희토류·해양·지하자원 기술 | 희토류 탐사·채굴·정련 시스템 스마트 지질 탐사 기술 심해 해양 탐사·채굴 장비 오프쇼어 에너지 추출 기술 |
| 10 | 사이버 보안 | 방화벽, 침입 탐지·차단 솔루션 보안 솔루션 |
| 11 | 항공·우주 | 원격탐사·저궤도 위성 지상국 및 위성제어 무인항공기 |

자료: Resolution No.60-NQ/TW

- (반도체 로드맵) 'C=SET+1'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2040년 글로벌 허브 도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 제시

* C : 칩, S : 특수칩, E : 전자+디지털전환, T : 인재육성, +1 : 베트남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공식 : C=SET+1〉



자료: Decision No.1018/QD-TTg('25.09.21.)

• 첨단산업 특화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책 마련

- (특별인센티브)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기술 산업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세제·토지·관세 등 포괄적인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

* 2025년 6월 발표된 디지털기업법(Law No.71/2025/QH15)에 근거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구체적 인센티브 내용은 향후 시행령(Decree) 등 관련 규정 점검 필요

- (직접재정지원) 투자지원기금(ISF)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R&D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

* 반도체·AI 분야 R&D 센터의 초기 투자비용은 최대 50%, 칩·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제품 생산비용은 부가가치의 최대 3%까지 지원

* 관련 규정 : Decree No.182/2024/ND-CP('24년 12월 31일)

□ 주목할 통상·규제 환경 변화

- 내국수출입 법제화 및 세무 리스크 해소
 - (법적 기반) 기존 시행령(Decree) 수준에서 운영되던 내국수출입 제도를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관련 규정 : Law No.90/2025/QH15('25년 6월 25일)
 - (요건 완화)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주재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수출입을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지 법인을 둔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크게 높임
* 관련 규정 : Decree No.167/2025/ND-CP('25년 6월 30일)
 -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내국수출 물품을 영세율(0%)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과거 빈번했던 부가세 환급 거부 등 세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
 - (절차 명확화) 내국수출입의 정의와 통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물품 인도 전후에도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유연성을 부여
* 비관세구역(EPE 등)과 내수 기업 간 거래는 내국수출입 범위에서 제외
- 주요 품목 수입 규제 및 시장 관리 강화
 - (품목관리)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요건 및 제한을 강화,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 뚜렷
 - * (의약품) 유통기한이 9개월 이하인 경우 최소 1/3 이상 잔여기간을 확보해야 수입 가능
(관련 규정 : Decree No.163/2025/ND-CP('25년 6월 29일))
 - * (수입금지)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의 생산 및 수입 전면 금지
(관련 규정 : Official Dispatch No.17/TCHQ-GSQL('25년 1월 2일))
 - * (쿼터적용) 소금·가금류 계란·생담배 등에 대한 연간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초과분에 고율 관세 부과
 - (소액 면세 폐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기존의 100만 동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세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
* 관련 규정 : Decision No.01/2025/QD-TTg('25년 1월 3일)
 - (유통관리) 위조품 및 금지품 유통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 시장 관리 강화

□ 베트남 ESG 정책 강화 및 부문별 주요 내용

- (환경)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 (전력 개발 계획)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 추진
 - (EPR 시행) 2024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본격 시행, 관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재활용 의무 부과

- (녹색 금융 활성화) Vietnam Green Taxonomy를 통해 에너지, 교통, 건설 등 8대 지속가능 분야 지정, 녹색 채권·대출 등 지원
- (국제협력) JETP(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활용계획(RMP) 수립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 확대
- (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 (베트남 SDGs)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117개 세부 목표 수립·이행
 - (지역 불균형 해소) 신농촌개발운동을 통해 농촌 인프라 개선 및 소득 증대 추진
 - (사회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사회보험법 개정, 가입 대상 확대 및 최소 납부 기간 단축 등 다종적 사회보험제도 구축
 - (인권 및 성평등)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 및 성평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의 달 (매년 11월 15일~12월 15일) 진행
 - (ESG 도입 촉진) 베트남지속가능성지수(VNSI), 기업지속가능성지수(CSI) 등 다양한 평가지표 도입 및 기업 대상 교육·워크샵 지원 강화
- (지배구조) 2025년 개정 기업법 통과로 경영 투명성 요건 강화
 - (실질 소유주 공개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 최초 도입
 - * 기업은 정관 자본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이사회 임명 등 주요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을 실질 소유주로 식별하고, 신규 설립 또는 변경 등록 시 해당 정보 신고 의무 발생
 - (자본금 감소 요건 강화)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를 위한 ‘2년 연속 운영’ 요건 산정 시, 영업 중단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 강화
 - (주식 시장가격 산정 명확화) 기존에 정의가 부족했던 출자 지분 및 주식의 ‘시장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 제고
- (기업 동향) 정책 강화에 따른 ESG 경영 본격화
 - (Vin그룹) 비영리단체 ‘Thien Tam Fund’ 운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 (삼성전자)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및 직접 전력 구매계약(DPPA) 도입으로 베트남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
 - (비나밀크) 베트남 기업 최초로 탄소중립 국제 인증(PAS2060:2014)을 획득한 제조시설 구축
 - (KB증권) ‘베트남 100대 지속가능 기업’에 선정, ESG 공식 세미나 개최 등 현지 금융권의 ESG 확산에 기여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 미국發 통상 리스크 부상과 공급망 재편

〈미국-베트남 통상정책 타임라인〉

| | | | | | |
|-------------------------------------|--|--|-----------------------------------|-----------------------------|---|
| 2.14 베트남, 트럼프 정부와 선체적 무역협상 시도 | 4.3 베트남, 미국에 관세완화 요청 - 중국 경상 풍선판 - 베트남 관세유예 및 미국 관세 10% 조정 제안 | 4.9 미국, 청조판례 90일 간 유예 발표 | 4.15 베트남, 혼란자 규정 및 관리 강화 강화 | 6.9~12 미국-베트남 3차 무역협상 | 10.26 호혜적·공정·균형적 무역 환경 기반 프레임워크 합의(일부 상품 0%) |
| 4.2 미국-베트남에 45% 관세제표 | 4.5~8 베트남, 미국 주요수출품에 대해 관세 인하 - LNC, 자동차, 해양물 등 | 4.9~10 베트남 부동산 산하 통신간 방미 - 미국 항공대표부 방문 - 우선 협상 5개국(미국, 캐나다, 대중 - 영국, 일본, 중국, 인도) | 5.19~22 미국-베트남 2차 무역협상 | 7.2 협상 합의(20%) |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배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강화
 - 특히, 베트남산 직접 수입품에 대해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회피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된 상품이 적발될 경우, 40% 관세 및 기타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
 - * ‘환적’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현지에서 단순 조립(assembling) 수준의 가공만 거친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해 베트남 내 생산기업들은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 확대 및 원산지 증빙 강화 등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
- (영향) 상호관세 조치가 베트남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공급망) 전자, 의류,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 조달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가속화
 - (수출) 미국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전자제품, 의류, 기계 부품 등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저하 및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바이어의 조달선 재편에 따른 수출 감소 리스크 존재
 - * 베트남 새우 수출 업계의 경우, ’25년 9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후 이익은 7% 증가에 그침. 관련 업체 ‘A’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판매 관련 비용 중 상호관세 부담이 미화 약 73만 3,000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관세가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FDI) 중국산 부품 포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로 중국계 자본의對베트남 투자 축소 또는 생산기지 재분배(예시 : 인도네시아, 멕시코) 검토 가능성 제기

- (기회) 對미 수출 비중이 높은 모든 산업이 원부자재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존재
 - 對미 수출 비중이 높은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가구, 전자제품, 섬유·의류 산업 등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한국·일본 등 기술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내 현지 기업들과의 원부자재 공급 협력,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진입 및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원산지 관리 강화

- (배경) 베트남 정부는 자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기지’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 특히 미국 측이 베트남산 제품 중 중국산 부품 비율이 높은 경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 세탁(origin laundering)’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시작
- (주요 조치)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25년 상반기부터 원산지 관리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우회수출 및 위조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검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통합 관리 강화) 발급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일부 권한을 철회하고 MOIT 산하 지방무역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중심으로 발급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리 투명성 제고
 - (원산지증명서 진위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원산지증명서 제출 후에도 해당 수출기업의 생산현장 실사, 원자재 조달경로 조사, 수출물량 검증 병행 실시
- (유의사항) 기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담당하던 일부 C/O 발급 권한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규제 변화에 대한 진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며,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 공급망 내 원자재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 생산공정별 부가가치 관리, △ 정확한 C/O 신청 및 보관 절차 수립이 필수적

* VCCI 철회 대상 권한 : 일반 원산지증명서(C/O Form A, B),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GSTP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노르웨이·스위스 일반특혜제도에 따른 수출업자 REX 코드 등록

나. (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물류 변화

□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

- (배경) 저부가가치 조립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045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국가 역량 집중
 - 스마트 제조, 전기차, 반도체, AI 등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 내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다변화 추진
 - 고품질 노동자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첨단산업 발전 기반 마련 노력
- (정책) 반도체·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E-모빌리티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 VinFast 등 자국 기업의 생산 확대 장려
 - 국가전략산업은 기술자립과 산업고도화를 통한 '2045 선진국 비전' 실현의 핵심 축으로, 정부가 연구개발·인력양성·세제혜택을 집중 지원하며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연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
 - 하노이는 2026년부터 도심 1번 순환도로 내부 내연오토바이 운행 금지를 추진 중이며, 호치민시는 도심지 저배출구역(LEZ) 시범지정을 검토 중
- (영향) VinFast의 전기차 생산 확대,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도입 등 전기차·배터리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자동화 설비 도입이 새로운 트렌드로 포착
 - 베트남 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 전체 자동차 판매 49만 4,000대 중 9만 대 이상이 전기차로, 시장 점유율 약 18% 수준. 2028년 100만 대, 2040년 35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전망
 - * 2024년 기준 VinFast의 전기차 판매량은 8만 7,000대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1위 기업으로 부상했으며, VinFast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 생산설비 증설,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등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흐름을 보이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전기차 생태계 확장 기대
 - EVN은 2024년 8월 50MW/50MWh 규모의 BESS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개정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에 따라 2030년까지 300MW 수준으로 확대 목표를 설정
 - * 2025년 4월 부로 개정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 중이며, 개정안은 전력망 안정성 지원을 위해 BESS 도입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 요금을 적용
- (기회) 전자, 전기차, 배터리, 자동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소부장 협력 수요 증가
 - * 유망 품목 : 반도체 패키징·PCB 소재, 전기차 배터리 소재·전장부품, BESS·ESS 관련 시스템(BMS, PCS 등), 자동화 공정 로봇·센서 등

□ 물류 인프라 현대화

- (배경) 국가 균형 발전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물류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 주요 프로젝트
 - (고속철도) 북남고속철도(1,541km, 약 670억 달러) 2027년 착공 목표
 - * 베트남 정부의 고속철 민간투자 허용 추진에 따라 VinSpeed·Thaco 등 현지 대기업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으며, 구간별 분할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설계·시공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 有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프로젝트 노선계획(안)>



자료: 베트남 현지언론 VNExpress

- (공항) 남부 호치민 인근 롱탄국제공항 1단계 2026년 상업 운영 목표
 - *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1단계 공정은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활주로·터미널 등 주요 공정이 예정보다 앞서 추진되어 2026년 상반기 상업 운항 개시 전망

〈베트남 남부 롱탄국제공항 조감도〉



자료: 베트남 공항공사

- (항만) 북부 락후옌, 남부 까이맵-티비이항을 국제환적항으로 육성 목표
 - * 북부 하이퐁 심해항의 수심 한계와 기존 항만 포화로 락후옌 신항 및 배후단지 개발 추진 중이며, 남부 까이맵-티비이항은 동나이·호치민 산업벨트와 연계한 물류거점으로 확대 구축 중
- (기회) 고속철 차량(EMU)·신호·통신 시스템, 공항 IT·보안·운영 시스템, 항만 자동화 및 냉동물류센터 등 ‘EPC+운영+상업’ 패키지형 사업

다. (환경·에너지) 녹색 전환과 에너지 믹스 재설계

□ 원자력 발전소 도입 재추진 및 전력망 현대화

-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 대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
- (정책) ‘개정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을 통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LNG 발전과 원자력(2031년~)을 신규 도입하는 등 에너지 믹스 재설계

개정 PDP8 내 베트남 중장기 LNG 발전소 프로젝트 리스트

| 연번 | 프로젝트명 | 지역 |
|----|-----------------------------------|---|
| 1 | 퀸랍(Quynh Lap) 1.5GW LTP 사업 | Nghe An(응애안성) |
| 2 | 까나(Ca Na) 1.5GW LTP 사업 | 구 Ninh Thuan(닌투언성) 신규 Khanh Hoa(카인호성) |
| 3 | 응이손(Nghi Son) 1.5GW LTP 사업 | Thanh Hoa(타잉호아성) |
| 4 | 꽝닌(Quang Ninh) 1.5GW LTP 사업 | 구 Quang Ninh(꽝닌성) 신규 Quang Binh(꽝빈성) |
| 5 | 타이빈(Thai Binh) 1.5GW LTP 사업 | 구 Thai Binh(타이빈성) 신규 Hung Yen(훙옌성) |
| 6 | 꽝짜(Quang Trach) 2 1.5GW LTP 사업 | Quang Binh(꽝빈성) |
| 7 | 하이랑(Hai Lang) 1.5GW LTP 사업 | 구 Quang Tri(꽝짜성) 신규 Quang Binh(꽝빈성) |
| 8 | 썬미(Son My) 1 2.25GW LTP 사업(BOT) | 구 Binh Thuan(빈투언성) 신규 Lam Dong(럼동성) |
| 9 | 썬미(Son My) 2 2.25GW LTP 사업 | Binh Thuan(빈투언성) 신규 Lam Dong(럼동성) |
| 10 | 연짝(Nhon Trach) 3,4 1.624GW LTP 사업 | Dong Nai(동나이성) |
| 11 | 히엡프억(Hiep Phuoc) 1 1.2GW LTP 사업 | Ho Chi Minh(호치민시) |
| 12 | 롱안(Long An) 1 1.5GW LTP 사업 | 구 Long An(롱안성) 신규 Tay Ninh(떠이닌성) |
| 13 | 박리에우(Bac Lieu) 3.2GW LTP 사업 | 구 Bac Lieu(박리에우성) 신규 Ca Mau(까마우성) |
| 14 | 히엡프억(Hiep Phuoc) 2 1.6GW(신규) | Ho Chi Minh(호치민시) |
| 15 | 하이퐁(Hai Phong) 1 1.6GW(신규) | Hai Phong(하이퐁시) |
| 16 | 롱썬(Long Son) 1.5GW | 구 Ba Ria-Vung Tau(바리아 붕따우성) 신규 Ho Chi Minh(호치민시) |
| 17 | 꽁타잉(Cong Thanh) 1.5GW | Thanh Hoa(타잉호아성) |
| 18 | 붕양(Vung Ang)3 1.5GW | Ha Tinh(하띤성) |
| 19 | 롱안(Long An) 2 1.5GW | 구 Long An(롱안성) 신규 Tay Ninh(떠이닌성) |
| 20 | 하이퐁(Hai Phong) 2 3.2GW | Hai Phong(하이퐁시) |
| 21 | 꽝짜(Quang Trach) 3 1.5GW | Quang Binh(꽝빈성) |

주: 개정 PDP8 원문의 리스트 22번 '새 개발 및 2035년 이후 잠정 지역들 나열' 제외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제도)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시행과 B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우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계통 안정성 확보 추진
- (기회) LNG 터미널·발전소 및 원전 관련 EPC·컨설팅·금융 조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
 - * 유망 품목 : 신재생에너지(풍력 하부구조, 해저케이블) 및 ESS·PCS 등 기자재, 송변전 설비(GIS, HVDC) 등

□ 탄소시장 시범운영

-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와 EU의 CBAM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 전환(Đổi mới Xanh)’을 국가 핵심 의제로 추진
- (내용) 탄소시장 도입,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 (기회) 국제감축사업, 저탄소 설비·기술 및 측정·보고·검증(MRV) 컨설팅 등
 - *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은 초기 단계인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 확인과 구체적인 사례 누적 필요

라. (소비재) 1억 소비시장의 질적 변화

□ ‘1억 인구 소비시장’의 진화, 디지털과 가치소비가 이끄는 뉴 웨이브

- (배경) 2023년 인구 1억 명을 돌파하고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베트남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소비시장으로 진화 중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2025년 1,628억 달러에서 2030년 2,09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5.1%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 예상
 -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상향 조정으로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며 중산층 소비력이 증가하는 추세. 가격보다 제품의 진품성, 브랜드가치, 결제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며, 현대적 유통 채널 중심의 프리미엄 소비가 성장
- (특성) MZ세대 등 디지털 네이티브가 소비를 주도하며 낮은 브랜드 충성도와 온라인·옴니채널 쇼핑 선호가 뚜렷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통 소매점이 여전히 전체 소매 유통의 약 52%를 차지하며 지역 밀착형 신용 거래를 기반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22.8%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
 - * 모바일결제 확산과 함께 동네 상점들도 QR 결제 도입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숏폼·라이브커머스 등 실시간 소통형 콘텐츠로 소비자 구매 여정을 재편하며 오프라인의 즉시성을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
- (영향) 가격 민감도가 여전히 높지만, 건강·웰빙·편리성 등 개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프리미엄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 심화. 핵가족화,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는 새로운 소비 계층을 창출
- (기회) ‘K-Culture’의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국 소비재의 프리미엄 시장 진입 용이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해외 한류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한류 경험자의 98.9%가 최근 1년 내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요 구매품목은 식품(96.0%), 의류(93.8%), 화장품(93.0%) 순
 - *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K-pop'(17.0%)과 '한국 음식'(13.4%)이 1·2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뷰티제품(화장품)''(8.8%), '한류스타'(6.7%), '영화'(6.2%) 순
- 한국산 제품 구매 이유로는 '품질'(68.3%)이 가장 높았고, '가격'(42.8%), '편리성'(36.8%), '브랜드 이미지'(31.9%) 순으로 나타나 '품질 신뢰'와 '브랜드 친숙도' 가 소비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짜분유' 사태로 촉발된 통관·유통 관리 강화

- (배경) '가짜분유'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위조품 대량 유통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통관 및 유통관리를 전면 강화
- (영향) 식품안전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예고되면서 신규 허가가 보류되고 검사 강화로 통관이 지연되는 등 거래 불확실성 증대
- (리스크) 강화된 검사와 절차, 담당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통관 및 신규 허가가 지연되어 바이어의 계약 일정 조정 등 비즈니스 차질 발생 중

II. 시장 분석

| | |
|----------|----|
| 1. 시장 현황 | 27 |
| 2. 유망 산업 | 49 |
| 3. 협력 기회 | 59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핵심가치) 프렌드쇼어링 속 '차이나 플러스 원'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1억 인구와 중산층을 기반으로 성장 소비시장으로서의 이중적 가치 보유
- (투자동력) 반도체,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글로벌 FDI가 증가하며, 특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脱중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수요가 투자 견인
- (소비특성) 디지털 네이티브가 주도하는 소비시장은 낮은 브랜드 충성도와 온라인·옴니채널 선호가 뚜렷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
- (미래기회)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스마트팜,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새로운 진출 기회 다대
- (진입장벽)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리스크, 중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복잡한 현지 인증 및 투자 규제는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진입장벽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글로벌 공급망 핵심 생산기지
 - (입지)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제조 국가와 인접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안정적인 정치 체제 기반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의 핵심 수혜국에서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부상
 - * 미국 상호관세 조치 이후 제조업 신규 투자는 감소했지만, 중국 대체 생산을 위한 제조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FDI) 관심 여전
 - (생태계) 삼성, LG, 인텔, 폭스콘 등 글로벌 전자·전기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더한 섬유·의류, 부품·기계류 등 중소기업의 투자진출로 제조업 벤류체인 형성
 - (FDI)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71.7%를 차지

2019~2024년 베트남의 자국 및 FDI 기업의 대외 수출 동향

(단위: US\$백만, 비중%)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자국 기업 | 78,989(29.9) | 78,196(27.7) | 89,290(26.6) | 95,842(25.8) | 95,655(27) | 114,910(28.3) |
| FDI 기업 | 185,277(70.1) | 204,432(72.3) | 246,876(73.4) | 275,872(74.2) | 259,065(73) | 291,025(71.7) |
| 계 | 264,267(100) | 282,628(100) | 336,166(100) | 371,715(100) | 354,721(100) | 405,935(100) |

주: 2024년 수출 통계는 잠정치이며 팔호안은 수출액 기준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25년 11월 확인가능 최신 자료)

• 개방적 통상 환경과 풍부한 자원

- (통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포함한 17개의 양자·다자 FTA 체결로 개방적인 통상 환경 구축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 강화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 연번 | 협정명 | 체결국 | 체결일 | 발효일 |
|----|--------------------------------------|--|---------------|---------------|
| 1 | ASEAN/AEC | ASEAN 10개국 | 1995. 12. 15. | 1996. 1. 1. |
| 2 | ASEAN–China(ACFTA) | ASEAN, 중국 | 2002. 11. 4. | 2006. 1. 1. |
| 3 | ASEAN–Korea(AKFTA) | ASEAN, 한국 | 2005. 12. 13. | 2007. 7. 29. |
| 4 | ASEAN–Japan(AJCEP) | ASEAN, 일본 | 2008. 12. 25. | 2008. 12. 1. |
| 5 | Vietnam–Japan(VJEPA) | 일본 | 2008. 12. 25. | 2018. 10. 1. |
| 6 | ASEAN–India(AIFTA) | ASEAN, 인도 | 2003. 10. 8. | 2010. 1. 1. |
| 7 | ASEAN–Australia–New Zealand(AANZFTA) | ASEAN, 호주, 뉴질랜드 | 2009. 2. 27. | 2010. 1. 1. |
| 8 | Vietnam–Chile(VCFTA) | 칠레 | 2011. 11. 11. | 2014. 1. 1. |
| 9 | Vietnam–Korea(VKFTA) | 한국 | 2015. 5. 5. | 2015. 12. 20. |
| 10 | EAEU–Vietnam FTA |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 2015. 5. 29. | 2016. 10. 5. |
| 11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2016. 2. 4. | 2018. 12. 30. |
| 12 | EU–Vietnam(EVFTA) | EU | 2015. 12. 1. | 2020. 8. 1. |
| 13 | ASEAN–Hong Kong FTA | 홍콩 | 2017. 11. 12. | 2019. 6. 11. |
| 14 | RCEP(ASEAN+6) |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 11. 15. | 2022. 1. 1. |
| 15 | Vietnam–UK(UKVFTA) | 영국 | 2020. 12. 11. | 2021. 5. 1. |
| 16 | Vietnam – Israel | 이스라엘 | 2023. 7. 25. | - |
| 17 | Vietnam–UAE CEPA | 아랍에미리트 | 2024. 10. 28. | -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자원) 희토류(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등 핵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강국이나 체굴·제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자체적인 역량은 제한적인 수준

* 2025년 8월 한-베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이 베트남에 2025년 하반기부터 5년 동안 166억을 투자해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를 설립, 선광·제련 장비 도입, 기술 지도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협의

- 1국 3색, 지역별로 특화된 시장·산업 환경

- (북부) 하노이 중심의 정치·행정 수도. 삼성·LG 등 대기업 및 협력사 집중. 소비는 다소 보수적이나 고가 브랜드 시장 활발
- (남부) 호치민 중심의 경제 허브이자 최대 소비시장. 신상품에 호의적으로 소비재 진출의 테스트베드 역할, 섬유·유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활발
- (중부) 다낭 중심의 관광 및 하이테크 도시. 하이테크파크를 중심으로 항공 부품 등 첨단기술 투자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유치 활발

- 구조적 과제

- (산업구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후방산업(원부자재·중간재 공급) 비중이 여전히 높아, 첨단 제조·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고도화와 질적 성장 전환이 필요한 상황
- (인프라) 최근 중국·대만계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집중되면서 산업단지 내 부지 부족, 기술인력 확보 난항, 전력 공급 불안 등 투자 과밀화에 따른 구조적 병목이 심화
- (높은 중국 의존도) 다수 중국 기업이 'Made in Vietnam'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 이전하지만, 핵심 부품·소재는 여전히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對중국 제재 확대 시 연쇄적 영향 위험이 상존

* 미국의 베트남 수출 태양광·알루미늄 등에 우회 덤픽 판정 확대 및 '원산지 세탁' 단속 강화로 중국 의존형 베트남산 제품 전반에 대한 제재 리스크 존재

□ 구매력, 소비 성향

- 1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 형성

- 2023년 인구 1억 명 공식 돌파, 꾸준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중산층 비중 및 가치분 소득 증가

2020~2028년 베트남 1인당 가치분소득

(단위: US\$천)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1인당 가치분 소득 | 2.66 | 2.67 | 2.83 | 3.02 | 3.2 | 3.32 | 3.44 | 3.64 | 3.85 |

주: 2025년 이후는 예상치

자료: Statista Market Insights, World Bank, OECD, Eurostat, World Bank PovcalNet, WID – World Inequality Database

- 소비주체 및 성향의 변화

- (주요 소비층) MZ세대 등 디지털 네이티브가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함께 소비시장에서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매우 높음
* 1980~2012년 출생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하며 이들은 2030년에 베트남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핵가족화 진행 및 고령화 시작으로 소형 가구, 시니어 등 신규 소비 계층 형성 전망
* 지난 20년간 평균 가구 규모가 20% 감소했으며, 베트남도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 2030년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소비패턴)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으나 ESG, 비건, 건강 등 가치 소비 성향 공존, 낮은 브랜드 충성도가 특징이며 소포장 제품을 선호
- (유통채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쇼핑 선호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중이며, 외국계 대형 유통 시장의 경쟁이 심화
*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vn)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4대 주요 플랫폼(Shopee, TikTok, Lazada, Tiki)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5% 성장하며 77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 특히 TikTok의 매출이 69% 상승하여, 점유율 39%(전년 동기 대비 +10%p) 기록

□ 주요 인증

- 수입금지 품목

- 자국 정책 및 특정 물품 보호를 위해 법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Decree No. 69/2018/ND-CP의 부록1에서 수입금지 14개 품목군 규정
* 품목별로 관할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처별 ‘시행규칙(Circular)’ 확인 필요

베트남 14개 수입금지 품목

| 연번 | 품목 설명 | 관할부처 |
|----|--|---------|
| 1 | •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용 기술장비 | 국방부 |
| 2 | • 각종 폭죽(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해상 안전용 제외), Sky lantern 관련 장치 • 특정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 공안부 |
| 3 | - Decree No.33/2024/ND-CP(舊 Decree No.38/2014/ND-CP) - Decree No.113/2017/ND-CP(*2025년 12월 31일 효력종료 예정) | 산업무역부 |
| 4 | • 중고 소비재, 의료 장비 및 차량 -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 가전제품 - 이륜차 등 | 산업무역부 |
| 5 | • 유통 금지대상 문화재 - Circular No.11/2018/TT-BTTT 부록 | 문화체육관광부 |
| 6 | • 중고 IT 장비 | 과학기술부 |

| 연번 | 품목 설명 | 관할부처 |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금지 출판물, 우편법에 따른 유통금지 우표 중고 차량 | 과학기술부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핸들 차량 - 프레임 또는 엔진 번호가 삭제, 수정, 변조된 차량 | 건설부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 부품 및 차량 - 엔진, 프레임, 타이어 등 자동차의 예비 부품 및 모터 - 생산년도로부터 5년이 지난 차량 및 트레일러와 중고 구급차 | 건설부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제품 | 농업환경부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 금지 살충제 | 농업환경부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ES에 따른 동식물 | 농업환경부 |
|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Scrap, C.F.C. 사용 냉장 설비 | 농업환경부 |
|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섬석 그룹의 석면을 포함하는 제품 및 재료 | 건설부 |

자료: Decree No.69/2018/NĐ-CP 부록1

-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술규정
 - 수입물품을 2개 그룹(그룹1-생산자 자율, 그룹2-강제인증)으로 구분해 관리
 - 관할 부처에서 그룹2 물품 중 소관 품목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을 고시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베트남 부처별 수입검사대상 품목

| 연번 | 품목 설명 | 개편 전 관할부처 | 개편 후 관할부처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 종자(쌀, 옥수수 등) 동물용 약품, 사료, 해양양식용 사료 제초제 및 농약류 비료, 공업용 소금, 목재용 접착제 농업용 및 농촌발전용 기계설비 등 | 농업농촌개발부 | 농업환경부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소 암모니아 연료 및 폭발물 건설용 파이프, 비계, 액화가스용 컨테이너 등 스팀 및 증기 보일러, 중앙제어 보일러 폭발방지 통신장비, 전기 회로 보호 장비, 케이블, 램프 등 | 산업무역부 | 산업무역부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운송수단 :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중장비 : 기중기 철도운송수단 | 교통부 | 건설부 |
| 4 | 시멘트류, 공사용 모래, 연석과 포석, 건설용 유리 및 기타 건설용 원재료 | 건설부 | 건설부 |
| 5 | 투망기, 총기류, 폭탄류, 최루탄, 가스마스크 등 | 공안부 | 공안부 |

| 연번 | 품목 설명 | 개편 전 관할부처 | 개편 후 관할부처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용 안전용품 : 안전헬멧, 안전화, 팔 보호구, 안면 보호구, 보안경, 산업용 마스크 등 리프트 및 리프트용 안전용구, 에스컬레이터 등 압축 가스 실린더 및 컨테이너 풀리와 호이스트 및 이동 용구 | | 노동보훈사회부 내무부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 송수신 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기 IT장비(컴퓨터, 랩탑, 태블릿) 랩탑, 핸드폰, 태블릿 PC용 리튬 배터리 | |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솔린, 디젤유, 바이오연료 및 LPG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 장난감 온수기,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 전자 제품 공사용 철근 및 철강제품, 스텐레스스틸 제품 엔진용 윤활제 LED 제품 | | 과학기술부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유통(對베트남 수출) 전 등록 필요 주요 소비재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는 사전 제품 등록 필요하며, 보건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함
 - * 통관 시 수입허가서 보유 여부, 성분 합치여부 및 제품등록여부 확인
 - * 2025년 9월 기준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으로 개정 전후 신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베트남 보건부 관할 조건부 수입 대상품목

| 연번 | 품목 설명 | 요건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제외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 가정용 및 의학용 살충제, 살균제 | - |
| 2 | 특별관리대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 보건부 수입허가서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유통등록이 되지 않은 다음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의약품 원료 - 연구 및 분석용 및 사용 안내용, 수리용 의료기기 - 무상원조 목적의 의료기기 - 개인사용목적의 의료기기 | 보건부 수입허가서 |
| 4 | 표준물질, 의약품과 직접 닿는 포장지 | 보건부 수입허가서 |
| 5 | 보건부 관리대상 수입식품 (생수, 얼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및 가공식품류 등) | 기술표준합치보고, 식품안전규정 부합 보고, 국가 검사 대상 |

| 연번 | 품목 설명 | 요건 |
|----|--|-----------|
| 6 | •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 보건부 수입허가서 |
| 7 | • 그외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원조목적 제품 (목적에 맞게 수입되는 선물용 등) | 보건부 수입허가서 |
| 8 | • 화장품 | 기술표준합치보고 |

자료: Decree No.69/2018/ND-CP

-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수출입·유통 제한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자는 사전 제품 등록 필요
 - * 보건부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며, 통과 시 수입허가서 보유 여부, 성분 합치여부 및 제품등록여부 확인
 - * 2025년 9월 기준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으로 개정 전후 신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대상 수출입·유통 제한 품목

| 구분 | 품목 설명 |
|---------|--|
| 수출금지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유 및 역청광 추출 원유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 제조 담배, 재구성담배, 담배액기스 등 •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기타 석유 조제품, 웨이스트오일 등 |
| 수입금지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 디스크·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등 • 기타의 항공기, 우주선,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등 • 쌀,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 담배, 시가 • 원유 및 가공유 • 약품 |
| 유통금지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 서적, 신문 및 잡지 • 귀금속 및 귀석, 주화 등 •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부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전자 형태의 것 -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에 따른 문화, 사회, 정치 안보 관련 상품 |

자료: Circular No.34/2013/TT-BCT

- 라벨링 부착 의무

- 베트남에서 수입·유통되는 제품은 규정에 따라 ① 제품명, ② 상품 책임자 정보, ③ 원산지 및 제품별 필수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한 라벨 부착 의무 존재

□ 베트남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의 이중 가치 보유
 -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과 1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고성장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동시에 보유
 - 확대되는 중산층과 젊은 인구 구조는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
 - ‘차이나 플러스 원’의 핵심 대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전략적 수출 기지로 성장 가능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베트남 2025년 1~9월 누계 수출 규모는 3,4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 글로벌 수요 회복과 공급망 다변화 수혜로 전자·섬유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예상
- (수입 규모) 베트남 2025년 1~9월 누계 수입 규모는 3,3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 글로벌기업의 현지 생산능력 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부자재·중간재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추정
 - * 2025년 1~9월 수입액 기준 FDI 기업이 전체 수입의 68.2% 차지(전년 동기 대비 +4.3%p)

베트남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US\$십억, %)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9월 누계 | |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역외수출 | 354.721 | -4.6 | 405.532 | 14.3 | 348,741 | 16.0 |
| 역외수입 | 326.358 | -9.2 | 380.990 | 16.7 | 331,915 | 18.8 |
| 무역수지 | 28.363 | 133.6 | 24.542 | -13.5 | 16,826 | -20.4 |
| 총 교역 | 681.079 | -6.9 | 786.522 | 15.5 | 680,656 | 17.3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상위 5개 수출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홍콩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수출 품목)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기계·장비류, 섬유·의류 중심
 - 미국, 중국, 한국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본은 섬유·의류 비중이 가장 높음

2025년 1~9월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단위: US\$십억, %)

| 순위 | 국명 | 수출액 | 증감률 | 주요 수출 품목 | | |
|----|----|-------|------|---------------------------|--------------------------|------------------------|
| | | | | 1위 | 2위 | 3위 |
| 1 | 미국 | 112.7 | 27.7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26.8%) | 기계·장비류 (15.5%) | 섬유·의류 (12.0%) |
| 2 | 중국 | 49.6 | 11.3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25.3%) | 전화기·휴대폰 및 부속품 (20.6%) | 기계·장비류 (8.1%) |
| 3 | 한국 | 21.3 | 12.4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29.5%) | 전화기·휴대폰 및 부속품 (14.1%) | 기계·장비류 (10.9%) |
| 4 | 일본 | 19.6 | 9.0 | 섬유·의류 (17.1%) | 운송수단 및 부품 (12.4%) | 목제 및 목제품 (10.1%) |
| 5 | 홍콩 | 12.9 | 38.5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62.2%) | 기계·장비류 (19.6%) | 전화기·휴대폰 및 부품 (8.2%) |

주: 괄호안의 비중은(해당품목에 대한 목적국 수출액)/(목적국 수출액)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상위 5개 수입국은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중국산 원부자재·중간재 수입 증가로 중국 비중이 전체의 40%를 상회
- (수입 품목)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기계·장비류 등 중간재·산업재 중심

2025년 1~9월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단위: US\$십억, %)

| 순위 | 국명 | 수입액 | 증감률 | 주요 수입 품목 | | |
|----|----|-------|------|---------------------------|-------------------|------------------|
| | | | | 1위 | 2위 | 3위 |
| 1 | 중국 | 134.4 | 27.9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28.5%) | 기계·장비류 (21.0%) | 원단·직물 (5.3%) |
| 2 | 한국 | 44.4 | 7.0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62.3%) | 기계·장비류 (7.8%) | 플라스틱 (3.7%) |
| 3 | 대만 | 24.1 | 44.9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71.4%) | 원단·직물 (4.8%) | 기계·장비류 (4.8%) |
| 4 | 일본 | 18.2 | 13.2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34.2%) | 기계·장비류 (20.0%) | 철·강철 (6.0%) |
| 5 | 미국 | 13.6 | 23.6 |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29.5%) | 면 (8.4%) | 기계·장비류 (6.7%) |

주: 괄호안의 비중은(해당품목에 대한 목적국 수입액)/(목적국 수입액)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對韓 교역 동향

- 베트남은 2022년부터 한국의 3위 교역국으로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 중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9월 |
|----|-------|-------|-------|-------|-------|-------|------------|
| 수출 | 3위 |
| 수입 | 5위 | 5위 | 6위 | 7위 | 7위 | 6위 | 5위 |
| 교역 | 4위 | 4위 | 4위 | 3위 | 3위 | 3위 | 3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교역 규모

- (수출) 2025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4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 (수입) 같은 기간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22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10대 주요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74.8%로 전기·전자 산업 관련 품목(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의 비중이 58.6%를 차지
 - * 평판디스플레이(-11.9%), 무선통신기기(-8.8%) 등의 수출액 감소는 현지 스마트폰 시장 둔화와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철강판 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과 현지 선박시장 호재에 따른 것으로 추정

한국의 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US\$백만, %)

| 2024년 | | | | 2025년 9월 누계 | | | |
|-------|-------------|---------------|------------|-------------|-------------|---------------|------------|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증감률 | 순위 | 품목명 | 수출액 | 증감률 |
| | 총 수출 | 58,323 | 9.1 | | 총 수출 | 46,009 | 7.0 |
| 1 | 반도체 | 18,039 | 41.7 | 1 | 반도체 | 17,838 | 38.7 |
| 2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11,227 | -9.1 | 2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7,430 | -11.9 |
| 3 | 석유제품 | 2,732 | -17.7 | 3 | 무선통신기기 | 1,730 | -8.8 |
| 4 | 무선통신기기 | 2,511 | 15.9 | 4 | 석유제품 | 1,701 | -21.0 |
| 5 | 합성수지 | 2,334 | 16.8 | 5 | 합성수지 | 1,657 | -6.7 |
| 6 | 기구부품 | 1,773 | -4.8 | 6 | 기구부품 | 1,342 | -1.0 |
| 7 | 플라스틱 제품 | 1,056 | 3.4 | 7 | 철강판 | 810 | 25.9 |
| 8 | 철강판 | 994 | 12.0 | 8 | 플라스틱 제품 | 804 | 0.6 |
| 9 | 자동차부품 | 856 | 12.7 | 9 | 자동차부품 | 619 | 8.7 |
| 10 | 면직물 | 690 | 0.6 | 10 | 계측제어분석기 | 488 | -5.5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수입) 10대 주요 수입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약 70.0%로 반도체(36억 달러, +75.6%), 계측제어 분석기(5억 달러, +29.4%)의 수입이 크게 증가

한국의 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US\$백만, %)

| 2024년 | | | | 2025년 9월 누계 | | | |
|-------|------------|--------|------|-------------|------------|--------|------|
| 순위 | 품목명 | 수입액 | 증감률 | 순위 | 품목명 | 수입액 | 증감률 |
| | 총 수입 | 28,444 | 9.6 | | 총 수입 | 23,531 | 11.4 |
| 1 | 무선통신기기 | 4,679 | 3.0 | 1 | 무선통신기기 | 3,657 | 1.8 |
| 2 | 의류 | 3,595 | 1.4 | 2 | 반도체 | 3,622 | 75.6 |
| 3 | 반도체 | 2,977 | 45.0 | 3 | 의류 | 2,606 | -4.2 |
| 4 | 컴퓨터 | 2,384 | 14.9 | 4 | 컴퓨터 | 2,111 | 17.8 |
| 5 | 산업용 전기기기 | 1,700 | 21.7 | 5 | 산업용 전기기기 | 1,495 | 20.1 |
| 6 | 신변잡화 | 1,221 | -2.5 | 6 | 신변잡화 | 901 | -3.9 |
| 7 | 목재류 | 682 | -5.7 | 7 | 계측제어분석기 | 584 | 29.4 |
| 8 | 기구부품 | 655 | 14.6 | 8 | 기구부품 | 543 | 17.2 |
| 9 | 계측제어분석기 | 620 | 53.6 | 9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513 | 19.5 |
| 10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598 | -9.1 | 10 | 목재류 | 454 | -9.5 |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10월)

• 한국의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

- (산업재) 전자·기계·화학 중심의 산업체 수출이 압도적 비중 차지. 삼성·LG 등 현지 진출 대기업 및 협력사의 조립·가공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구조
 - * 반도체(+38.7%) 수출은 글로벌 시장 회복 및 현지 후공정 확대에 기인. 평판디스플레이센서(-11.9%)는 현지 스마트폰 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철강판(+25.9%)은 현지 조선업계 호황으로 증가세
- (소비재)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제품의 위상이 크게 강화. K-콘텐츠 열기는 한국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소비로 연결 중

□ 베트남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베트남 진출 전략 : 웰니스 기업 D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D사는 여성 청결제를 취급하며, 유사 한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과 높은 품질을 동시에 보유
- 필수 인증 : ISO13485 또는 ISO9001 취득 후 베트남 보건국에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을 통해對한국 수입 경험이 있는 바이어와 연결
 - * 베트남 상공인연합회(VCCI), 전시 주최측(VINEXAD) 등을 통해 신뢰성 검증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D사는 2025년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바이어와 연결되어,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초기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 확보
 -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수입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은 초기 교신 과정에서 바이어의 요청·문의에 신속·성실하게 대응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한국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된 가격과 품질 우위가 시장 진출 성패를 좌우



성공 사례로 보는 베트남 진출 전략 : 식음료 기업 A사(현지 K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사는 무알콜 음료를 취급하며, 제품 다양성 및 글로벌 유통 경험으로 차별화 우위
- 필수 인증 :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준수 및 보건국에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3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을 통해 신규 거래선과 연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 성장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무알콜 음료 시장 점유율 확대를 2024년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 및 후속 지사화 참여를 통해 다수의 신규 거래선을 접촉
 - 베트남 신규 바이어와의 첫 접촉 이후에는 관계 지향적이고 신뢰를 중시하는 바이어 성향을 고려해, 단발성 대응을 넘어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베트남의 높은 산업재 수입 의존도와 생산기지를 이전한 자국 기업들의 공급망 활용으로 2025년 1~9월 기준 40.5%의 압도적인 점유율 기록, 영향력 지속 확대
- (한국) 현지 FDI 기업과 연계된 핵심 부품 수입 규모는 견고하나, 중국계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내 상대적 점유율은 2022년 17.3%에서 2025년 1~9월 13.4%로 3.9%p 축소
- (대만·일본) 양국 모두 FDI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꾸준히 공급 중

베트남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 국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9월 | (단위: %) |
|----|-------|-------|-------|------------|---------|
| 중국 | 32.95 | 33.90 | 37.85 | 40.50 | |
| 한국 | 17.31 | 16.09 | 14.70 | 13.39 | |
| 대만 | 6.29 | 5.64 | 5.97 | 7.27 | |
| 일본 | 6.50 | 6.63 | 5.68 | 5.50 | |
| 미국 | 4.02 | 4.24 | 3.96 | 4.11 | |

주: 수출액 비중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대외 수입 규제

- 2025년 9월 기준 베트남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9개국 16개 품목에 대한 구제조치 18건 및 전 세계 대상 2개 품목(합금·비합금 철강제품, 철강 와이어·코일 제품)에 대한 구제조치 2건 등 총 20건의 구제조치 시행 중
 - (유형별)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2건

베트남 국별 무역 구제조치 현황

| 구분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계 |
|-------|-----|------|-------|----|
| 중국 | 13 | - | - | 13 |
| 말레이시아 | 5 | 1 | - | 6 |
| 인도네시아 | 4 | 1 | - | 5 |
| 태국 | 3 | 1 | - | 4 |
| 한국 | 2 | - | - | 2 |
| 인도 | 2 | - | - | 2 |
| 라오스 | 1 | 1 | - | 2 |
| 미얀마 | 1 | 1 | - | 2 |
| 캄보디아 | 1 | 1 | - | 2 |
| 전 세계 | - | - | 2 | 2 |
| 계 | 32 | 6 | 2 | 40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25년 9월)

- (품목별) H형강 등 철강·금속이 가장 많은 12건을 차지했으며, 식품에 대한 4건 무역 구제 시행

베트남 품목별 무역구제조치 현황

| 구분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계 |
|-------|-----|------|-------|----|
| 철강·금속 | 10 | - | 2 | 12 |
| 식품 | 2 | 2 | - | 4 |
| 화학 | 2 | - | - | 2 |
| 가구 | 1 | - | - | 1 |
| 발전설비 | 1 | - | - | 1 |
| 계 | 16 | 2 | 2 | 20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25년 9월)

- (對韓 조치) 컬러도금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 중
 - * (컬러도금강판, 베트남 HS코드 기준) 72107011, 72107012, 72107013, 72107019, 72107021, 7210702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3, 72124014, 72124019, 72124091, 72124099, 72259990, 72269919, 72269999
 - * (아연도금강판, 베트남 HS코드 기준)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90, 721230, 721250, 721260, 721269, 721290, 722592, 722699

- 전망

-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유지) 17개의 FTA를 체결하는 등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펼치면서도, 무역 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이중적 정책 기조 지속 전망
- (행정 투명성 제고)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과 행정 개혁은 장기적으로 수입 통관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유발 가능

다. 산업

□ 주요산업 개요

- (제조업 중심) 베트남은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전자 제품·부품 등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
 - (성장 배경)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GVC 재편에 힘입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
- (주력 산업) 베트남 수출은 전기·전자 제조업과 경공업(섬유·의류, 신발류)이 양대 측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산업이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을 주도
 - (전기·전자산업) 컴퓨터·전자제품, 휴대전화 및 부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며 전체 수출 구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 컴퓨터·전자제품 수출 비중 추이 : ('23년) 16.2% → ('24년) 17.9% → ('25년 1~9월) 22.2%

* 제조 고도화 및 첨단 조립·가공 분야 확대로 IT·기계류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가속

- (경공업) 섬유·의류와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주력 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용 창출 및 내수 기반 유지에 기여

최근 베트남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US\$백만, %)

| 2024년 | | | | 2025년 9월 누계 | | | |
|-------|-----------------|--------|------|-------------|-----------------|--------|------|
| 산업 | 품목 | 수출액 | 비중 | 산업 | 품목 | 수출액 | 비중 |
| 전기·전자 |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 72,584 | 17.9 | 전기·전자 |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 77,485 | 22.2 |
| | 휴대전화 및 부품 | 53,891 | 13.3 | | 휴대전화 및 부품 | 43,592 | 12.5 |
| 산업 공통 | 기계, 설비, 도구 및 부품 | 52,191 | 12.9 | 산업 공통 | 기계, 설비, 도구 및 부품 | 43,996 | 12.3 |
| 경공업 | 섬유 제품 | 37,036 | 9.1 | 경공업 | 섬유 제품 | 29,743 | 8.5 |
| | 각종 신발류 | 22,871 | 5.6 | | 각종 신발류 | 17,792 | 5.1 |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25년 10월)

□ 현지 주요산업 최근 동향

- (산업 전반) 정부가 '산업고도화'와 '친환경 제조 전환'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 미국 상호관세 조치 관련 대응 동향
 - (제조 전반) 기업들은 对美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비 절감·공정 자동화·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효율화 전략 강화
 - (전기·전자)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남미 및 동남아 인근국으로 생산라인 다변화 검토
 - (섬유·의류) 중국산 원단 및 부자재 의존도 감소 위한 자국 공급망 확보 등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 추진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025년 9월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치 규모는 5,232억 달러(44,476건)로 펜데믹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9.5% 성장
 - 연도별 FDI 규모는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생산기지 다변화 수혜국으로 부상

* 최근 5년간(2021~2025년) 유입된 FDI가 1988~2025년 누적액의 약 30.5% 차지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US\$백만, %)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9월 누계 |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투자금액 | 38,854 | 25.2 | 29,288 | -24.6 | 39,390 | 34.5 | 38,226 | -3.0 | 28,543 | 15.2 |

자료: 베트남 재무부('25년 9월)

□ 현지 주요 투자유치 산업

- 미국 상호관세 조치 이후 제조업 신규 투자는 주춤, 부동산 개발 및 전문 과학기술, 유통업 등 투자 증가 추세 뚜렷
 - 투자 분야는 제조·가공업에 167 9,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FDI의 58.8%를 차지, 이어 부동산경영업(20.0%), 전문과학기술업(5.4%), 도소매 및 수리업(4.5%), 용수 및 폐수처리(3.3%), 호텔·요식업(2.1%), 전력 생산 및 판매(2.0%), 건설업(0.7%), 행정서비스업(0.6%), 물류 운송업(0.6%) 순

2025년 1~9월 산업 분야별 对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건, US\$백만, %)

| 구분 | 신규 | | 증액 | | 주식, 지분 | | 계 |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증감률 |
| 제조가공업 | 1,052 | 7,270.1 | 637 | 7,733.4 | 418 | 1,790.7 | 2,107 | 16,794.3 | 7.4 |
| 부동산경영업 | 81 | 2,565.9 | 39 | 2,610.4 | 71 | 525.8 | 191 | 5,702.1 | 30.2 |
| 전문과학기술업 | 339 | 239.0 | 69 | 229.5 | 409 | 1,059.1 | 817 | 1,527.6 | 80.3 |
|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업 | 989 | 399.4 | 199 | 320.9 | 999 | 565.0 | 2,187 | 1,285.3 | 39.7 |
| 도소매 및 수리업 | 6 | 1,075.0 | 4 | -175.3 | 8 | 38.5 | 18 | 938.2 | -997.5 |
| 호텔·요식업 | 65 | 286.3 | 14 | 219.2 | 166 | 84.2 | 245 | 589.7 | 521.7 |
| 전력생산 및 공급 | 3 | 337.8 | 2 | 16.6 | 13 | 210.6 | 18 | 565 | -49.6 |
| 건설업 | 34 | 11.7 | 25 | 65.7 | 31 | 121.6 | 90 | 199 | -66.1 |
| 의료 및 사회복지 | 61 | 25.5 | 17 | 123.5 | 55 | 20.6 | 133 | 169.6 | 81.5 |
| 금융 및 보험 | 97 | 91.4 | 17 | 26.0 | 91 | 44.6 | 205 | 161.9 | -71.0 |
| 물류창고업 | 1 | 2.0 | 3 | 81.3 | 8 | 76.2 | 12 | 159.5 | 67.9 |
| 기타 | 198 | 83.7 | 66 | 74.7 | 258 | 303.1 | 522 | 451.0 | - |
| 총계 | 2,926 | 12,387.9 | 1,092 | 11,315.2 | 2,527 | 4,840.0 | 6,545 | 28,543.1 | 15.2 |

자료: 베트남 재무부('25년 9월)

- 중국 대체 생산을 위한 **對베트남 외국인 제조 분야 투자 관심 여전**
 - 제조업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증가, 신규 투자(72억 7,000억 달러)와 증액 투자(77억 3,000만 달러)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
 - *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베트남의 반도체, 전자제품, 전기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FDI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2021~2025년 9월 제조업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US\$백만,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9월 누계 |
|--------------------------|--------|--------|--------|--------|-------------|
| 투자금액 | 18,121 | 16,801 | 23,505 | 25,578 | 16,794 |
| 전체 FDI 중 제조업 투자비율 | 58.1 | 60.6 | 64.2 | 66.9 | 58.8 |

자료: 베트남 재무부('25년 9월)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들의 수요 꾸준
 - * (기존 중국 공장 이전 사례) Foxconn(전자), Ingrasys(전자), Nitto(전자), BOE(전자), Hai Nan Longi Green Energy(에너지), YADEA(전기오토바이), LITE-ON Technology(컴퓨터), Tripod Technology(전자)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최근 5년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중국계 투자 강세**
 - 한국, 중국, 홍콩의 **對베트남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 대만은 2024년 이후 큰 폭 감소**

최근 5년 주요국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US\$백만)

| 지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9월 | '21~25년 9월 총투자액 | 1988년 이후 누적 투자액 |
|-------------|--------|-------|-------|--------|----------|-----------------|-----------------|
| 싱가포르 | 10,712 | 6,455 | 7,767 | 10,207 | 6,918 | 42,059 | 88,384 |
| 한국 | 4,953 | 4,879 | 5,131 | 7,057 | 4,305 | 26,325 | 94,222 |
| 일본 | 3,897 | 4,781 | 6,753 | 3,502 | 2,532 | 21,465 | 78,418 |
| 중국 | 2,922 | 2,518 | 4,588 | 4,723 | 3,426 | 18,177 | 33,772 |
| 홍콩 | 2,316 | 2,223 | 4,806 | 4,347 | 2,157 | 15,849 | 40,573 |
| 대만 | 1,252 | 1,352 | 2,958 | 2,084 | 1,442 | 9,088 | 42,095 |
| 미국 | 739 | 748 | 647 | 287 | 629 | 3,050 | 12,317 |

자료: 베트남 재무부('25년 9월)

- 중국계 자본은 싱가포르·홍콩 금융허브를 통한 간접투자가 활발하며, 글로벌기업이 지주회사를 금융허브국에 설립한 후 베트남에 진출하는 사례*도 포착
 - * Foxconn, 인텔, JINKO SOLAR, Goertek, Everwin Precision 등

- 싱가포르
 - 對베트남 누적 투자액 기준 2위, 연도별 규모는 2020년 이후 줄곧 1위 유지
 - 제조업 비중 약 50%로 한국에 이어 2위 제조 투자국으로 프로젝트당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 위주
- 일본
 - 최근 5년 전체·제조업 투자 모두 감소세 뚜렷. 전통적으로는 에너지·발전 분야 투자 및 ODA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투자를 진행
 - 최근 반도체 R&D 협력 강화, 장비 관련 베트남 내 생산시설 확장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
 - * 베트남 정부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전략과 맞물려 전략적 투자 방향을 형성
- 중국
 - 2018년 미-중 통상 경쟁 이후 점진적 투자 증가, 팬데믹 이후 제조시설 이전 가속
 - 지난 5년간 제조업 투자 비중 83.3%, 신규 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주요 투자국 중 1위, 제조업 투자 규모는 한국·싱가포르에 이어 3위
 - *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이후 베트남의 對미 수출액이 급증, 이는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한 우회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추정
 - 최근에는 전기·전자, IT, 에너지, 기계, 화학,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로 투자 확대 중
- 홍콩
 - 최근 5년간 제조업 중심 투자, 중국·다국적 기업이 홍콩 금융시장을 경유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사례 많음
 - *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부품, 가구 등 다양하며 주로 對미 수출용 제품 생산에 집중
- 대만
 - 최근 5년간 대만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적 증가, 이는 미-중 무역 경쟁으로 인한 중국 내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로 인한 중국 내 대만 공장 이전 수요 확대 기인
 - * Foxconn 등 애플 협력사들이 베트남 북부지역(박닌·박장 등)에 대규모 투자, 중국 기반 대만 기업들이 주도하는 형태
- 미국
 - 對베트남 투자 규모는 한국의 1/8 수준
 - 전문 과학기술, ICT, 에너지 분야에 집중. 제조업 투자 비율은 약 40%,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기술 협력·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직접 투자 증가세
 - * 반도체, AI, 식음료, 소비재 등 대형 프로젝트 투자, 脱중국 전략과 베트남 산업 고도화 정책과 연계

□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 현황

-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2025년 6월 누계 기준 1억 6,840만 달러(1,023건)
 - 투자 건수나 금액 면에서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2022년 이후 투자 프로젝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투자액 기준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91.8% 차지, 다음으로 제조업에 7.7% 투자

베트남의 對한국 연도별 투자동향

(단위: US\$백만, 건)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6월 | 누계 |
|--------|------|------|------|------|------|------|------|-------|-------|-------|---------|---------|
| 신고금액 | 1.4 | 6.9 | 3.5 | 15.9 | 25.7 | 1.1 | 2.7 | 15.2 | 13.3 | 22.5 | 10.9 | 168.4 |
| (신고건수) | (9) | (11) | (15) | (19) | (31) | (11) | (26) | (186) | (200) | (259) | (148) | (1,02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5년 11월 확인가능 최신 자료)

- (최근 베트남의 對韓 투자 사례) FPT소프트웨어
 - 베트남 SI업체 FPT소프트웨어, 2016년 한국 진출 이후 2025년 2월 판교에 4번째 지사 설립. SAP, ERP, 로우코드 분야에서 2024년 전년 대비 60% 매출 신장
 - * 서울 2개소, 대구 1개소
 - 한국 내 디지털 혁신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00명 이상의 한국 기술인력과 2,500명 이상의 베트남 현지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으며, LG전자, 신세계 I&C, 신한은행 등 주요 고객사 확보

□ 한국의 해당 주재국 투자 진출

- 팬데믹 이후 감소세였던 對베트남 투자, 2024년부터 뚜렷하게 반등
 - 2023년 투자액은 9.8% 감소했으나, 2024년 60.3% 반등, 2025년 1~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9% 급증하며 팬데믹 부진을 완전히 회복
 - 신규 투자는 5억 6,000만 달러(330건)로 제한적이었으나, 증액 투자가 30억 달러(213건)에 달해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
 - * (주요 증액 투자) 삼성디스플레이(18억 달러), 서울반도체(1억 7,000만 달러), 자화전자(1억 5,000만 달러)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진출 동향

(단위: US\$백만, 건, %)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상반기 | |
|-------------|-------|------|-------|------|-------|-------|-----------|-------|
|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금액, 건 | 증감률 |
| 투자금액 | 2,856 | 13.5 | 2,663 | -6.8 | 2,763 | 3.8 | 1.162 | -57.9 |
| 신규 법인 설립 건수 | 300 | 28.2 | 373 | 24.3 | 330 | -11.5 | 318 | -3.6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11월 확인가능 최신 자료)

- 제조업 기준 베트남 1위 투자국

- 2025년 1~9월 對베트남 한국 투자의 74.9%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부동산 경영업(10.2%), 전력·용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4.2%), 건설업(2.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1%), 물류운송업(1.5%), 호텔·요식업(1.0%) 순
- 제조업 신규 투자는 2023년 133건, 2024년 122건, 2025년 1~9월 94건 등 총 349건으로, 중국·홍콩보다는 적었으나 싱가포르·대만·일본보다는 많은 수준

2025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산업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건, US\$백만)

| 분야 | 신규 | | 증액 | | 주식, 지분 | | 계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제조가공업 | 94 | 443.5 | 131 | 2,854.5 | 59 | 151.8 | 284 | 3,449.8 |
| 의료 및 보건 | 105 | 28.0 | 34 | 5.9 | 294 | 345.7 | 433 | 379.7 |
| 호텔·요식업 | - | - | - | - | 1 | 110.4 | 1 | 110.4 |
| 도소매 및 수리업 | 8 | 29.8 | 12 | 30.5 | 15 | 35.0 | 35 | 95.3 |
| 부동산 경영업 | - | - | 1 | 83.7 | 1 | 5.3 | 2 | 89.0 |
| 전문과학기술업 | 27 | 40.8 | 3 | 0.1 | 45 | 24.5 | 75 | 65.4 |
| 물류창고업 | 29 | 3.3 | 7 | 1.4 | 115 | 26.6 | 151 | 31.4 |
| 정보통신업 | 35 | 7.8 | 11 | 12.7 | 44 | 5.8 | 90 | 26.3 |
| 행정 및 지원서비스 | 6 | 3.3 | 2 | 1.2 | 25 | 19.2 | 33 | 23.7 |
| 건설업 | 7 | 1.4 | 5 | 5.3 | 6 | 1.8 | 18 | 8.5 |
| 농림수산업 | 1 | 0.5 | 1 | 1.8 | 1 | 5.6 | 3 | 8.0 |
| 기타 | 18 | 6.7 | 6 | 4.5 | 27 | 7.3 | 51 | 18.6 |
| 총계 | 330 | 565.2 | 213 | 3,001.8 | 633 | 739.0 | 1,176 | 4,305.9 |

자료: 베트남 재무부('25년 9월)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스마트팜 기업 A사, 한국 스마트팜 기술 활용 및 현지 공급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전라도 스마트팜 설치·운영 기업으로 10여년 간 활동
- (성공사례)
 - 베트남은 농업 강국이나 기술·설비 수준이 낮아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한계
 - 한국의 '베트남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참여해 초기 시장 진출, 현지 지방정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 딸기·포도·버섯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기자재·시스템에 현지 수요 포착
 -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낙락·뚜엔꽝)에 시범단지를 조성 중이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예정
- (시사점)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안정적 진출 기반을 확보했고, 현지 지방정부·기업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추가 사업기회와 법인화 성과를 달성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헬스케어기업 H사, 베트남 건강검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국내 병원 운영 및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보유, 특히 AI 기반 건강검진 인프라 및 IT 솔루션 제공 기업
- (성공사례)
 - 2024년 베트남 고급 의료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병원 설립·운영 개시
 - 베트남 정부의 의료 디지털화 정책에 맞춰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 AI 기반 병원 IT 솔루션 및 건강검진 시스템 공동 개발
 - 특히, 임상 환경에 특화된 IT 프로세스 및 건강검진 시스템을 공동 개발 및 베트남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
 - 임상 환경에 특화된 프로세스를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 향후 국영·민간 병원 확대를 통해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 모델 확산 전망
- (시사점) 베트남은 의료 디지털화가 더딘 상황으로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이 낮음. 한국 기업은 선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노하우와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1억 인구 시장에서 전략적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음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G사, 해외 완성차 부품 수출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정보) 울산 소재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기업으로 현재 한국 및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
- (성공사례)
 - 미중 통상 분쟁 발생 이후 해외 완성차 기업들의 중국산 부품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지난 2024년 이후 중국 생산 공장 베트남 이전 실행
 - 2025년 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중국산 부품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동사는 제3국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
 - 현지 노동력과 연관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바이어들로부터 신규 구매 제안을 다수 확보, 생산 안정화 이후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 (시사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바이어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 시의적절하게 공장 이전을 추진, 현지 경쟁력 확보에 성공. 향후 베트남 제조공장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투자인센티브 수혜 혜택 어려움
 - (구조적 한계) 인센티브가 주로 세금 감면·토지 사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조금·투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
 - (행정 절차)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활용이 어려움
 - (세무 변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 인센티브 효과가 축소될 우려
 - (중소기업 혜택 축소) 대규모·첨단·빈곤지역 투자에 유리하나, 일반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제한적

- 서비스 및 특정 조건부 사업 분야 투자 인허가 어려움
 - (조건부 업종) 방송, 통신, 광고, 교육, 부동산, 여행, 의료·사회 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물류, 전자상거래 등 59개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 (복잡한 요건) 업종별로 별도 법률·시행규칙을 검토해야 하며, 일부 조건은 모호하거나 충족이 어려움
 - (정보 부재) 진입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투자자 혼란 가중
 - (투자 방식 제약) 규제 부담으로 인해 단독 투자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 선택이 일반적

2. 유망 산업

가. 전기·전자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시장규모) FitchSolutions는 전자제품 시장이 2024년 94억 달러에서 2025년 10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은 2024년 17억 달러에서 2025년 1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 * 전기·전자산업은 베트남 전체 교역액의 약 34%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2025년 상반기 기준)
 - (주요기업) 삼성전자, LG, 인텔, 폭스콘, BOE, 앤코 등 글로벌기업
 - * 주력 품목 : 삼성(스마트폰·가전·디스플레이), LG(가전·전장), 폭스콘·BOE(애플 협력사), 인텔·앤코(반도체 후공정)
- 최근 수출입 동향
 - (수입) 2025년 1~9월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39.0% 증가, 휴대전화 및 부품은 11.0% 증가
 - (수출) 같은 기간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은 45.9% 증가, 휴대전화 및 부품은 4.1% 증가

베트남 전기·전자 산업 품목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

| 구분 | 2024년 | | 2025년 9월 누계 | | | |
|----------------|--------|---------|-------------|------|---------|------|
|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 72,595 | 107,119 | 77,485 | 45.9 | 109,975 | 39.0 |
| 휴대전화 및 부품 | 53,891 | 10,404 | 43,592 | 4.1 | 8,194 | 11.0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25년 10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생산 허브) 삼성, LG, 인텔 등 글로벌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며, 단순 조립을 넘어 R&D·반도체 후공정을 포함한 완성형 생태계로 발전
- (공급망 재편 가속화) 경제 냉전 심화에 따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중국계 및 글로벌기업의 베트남 투자유입 급증
 - * 애플 주요 협력사(폭스콘, 럭스셰어 등) 중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했으며, 탈중국 기업의 베트남 이전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 인텔, 앤코, 하나마이크론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 투자가 이어지며 현지 공급망 구축 본격화

(참고) 베트남 전기·전자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기업 최신 동향 |
|----------------------------|--|
| 삼성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제조 및 R&D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박닌·타이응우옌 공장 중심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 등 핵심 생산기지 구축 - 남부 호치민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 내 가전 복합단지 운영 -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 R&D 센터 별도 운영 투자 현황 : 누적 총 투자액 255억 달러 최근 동향 : 2025년 1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12억 달러 추가 투자 |
| LG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전장부품 제조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하이퐁을 중심으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가 집결한 클러스터 형성 - 초기 현지 내수시장 중심에서 글로벌 생산 하브로 전략을 전환. 기존 분산되었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생산라인 하이퐁 공장으로 통합 투자 현황 : 누적 총 투자액 105억 달러 최근 동향 : 2024년 말, LG디스플레이 공장에 23억 5,000만 달러 추가 투자 |
| 폭스콘 (Foxcon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전자기기 위탁생산(애플 아이폰, 주변기기 등) 진출 현황 : 북부 박닌성, 박장성에 핵심 생산 공장을 운영 최근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생산기지 다각화를 위해 북부 광빈, 응에안 등으로 투자를 확장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빈 5억 5,000만 달러 규모 가전제품 생산공장, 응에안성 2억 달러 규모 주변기기 공장, 박장 8,000만 달러 규모 인쇄회로기판 투자 진행 중 |
| 페가트론 (Pegatr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전자기기 위탁생산(애플 아이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 핵심 협력사 중 하나로 전자제품, 통신기기, PCB 부품 등 생산하며, 중국과 인도 공장을 운영 중 진출 현황 : 북부 하이퐁에 생산공장 운영 중 최근 동향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에 2026년까지 5억 달러 증액 투자 계획 |
| BYD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태블릿PC, 칩, 5G 모듈, 드론 등 전자부품 제조 진출 현황 : 북부 푸터에 생산공장 운영 중 최근 동향 : 북부지역 내 추가 1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 확대 추진 |
| 인텔 (Int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 반도체 후공정(조립·테스트·패키징) 진출 현황 : 남부 호치민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전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후공정 공장 운영 최근 동향 : 2024년 34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현지 정부에 제출,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투자 계획 백지화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회요인

- (공급망 확장) 글로벌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는 진출한 우리 기업에 협력 네트워크 확장, 신규 공급망 발굴을 통한 사업기회 창출로 이어질 전망
 - 특히 미국의 중국산 제품 우회수출 감시 강화에 따라, 베트남 산업계는 한국·일본·대만 등으로부터 부품 수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임

나. 에너지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전력 생산) 2024년 수입 전기 포함 총 전력 발전량은 308.7TWh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5년 발전 목표를 374.5TWh(+12.2%)로 설정
 - *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화력(49.5%), 수력(28.7%), 재생에너지(12.8%) 순
 - * 베트남은 자국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중국, 라오스로부터 전력 수입 중

2023~2024년 베트남 전력원별 발전량

(단위: GWh, %)

| 발전원 | 2023년 | 2024년(목표) | 2024년(실제) | 증감률 | 달성률 |
|--------------|----------------|----------------|----------------|------------|--------------|
| 수력 | 80,621 | 80,479 | 88,723 | 10.0 | 110.2 |
| 석탄화력 | 129,764 | 159,369 | 152,775 | 17.7 | 95.9 |
| 가스터빈 | 26,362 | 23,133 | 21,827 | -17.2 | 95.9 |
| 석유화력 | 1,250 | 77 | 175 | -86.0 | 94.4 |
| 수입 | 4,220 | 4,395 | 5,144 | 21.9 | 227.3 |
| 재생에너지 | 38,145 | 37,988 | 39,641 | 3.9 | 117.0 |
| - 풍력 | 11,586 | 11,178 | 12,747 | 10.0 | 104.4 |
| - 태양광 | 25,692 | 25,762 | 25,862 | 0.7 | 114.0 |
| - 바이오매스 | 868 | 1,048 | 1,032 | 18.9 | 100.4 |
| 기타 | 452 | 818 | 446 | -1.3 | 98.5 |
| 계 | 280,814 | 306,259 | 308,732 | 9.9 | 100.8 |

자료: EVN

- (총 설비 용량) 2024년 84,126MW에서 2025년 89,818MW로 성장 전망
- 베트남 개정 제8차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 발표
 - (목적) 전력수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확보
 - * 총 설비 용량 목표(최대 전력) : 2030년 89,655~99,334MW, 2050년 205,732~228,570MW

- (방향) ① 원자력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 ② LNG발전 도입으로 전원구성 다양화, ③ 2030년 이후 석탄화력 신규 개발 중단 및 연료혼소 추진

2030년 베트남 주요 그린에너지 믹스 목표(설비용량 기준)

(단위: MW, %)

| 발전원 | 2030년 |
|--------------|--------------------------|
| 태양광 | 46,459~73,416(25.3~31.1) |
| 풍력 | 26,066~38,029(14.2~16.1) |
| LNG | 22,524(9.5~12.3) |
| 에너지저장장치(ESS) | 10,000~16,300(5.5~6.9) |
| 원자력 | 4,000~6,400(2.2~2.7) |
| 바이오매스 | 1,523~2,699(0.8~1.1) |
| 폐기물 | 1,441~2,137(0.8~0.9) |
| 전체 용량 | 183,291~236,363 |

주: 괄호안은 에너지믹스 내 비중이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전원믹스는 비공개 자료

자료: Decision No.768/QD-TTg(2025년 4월 15일)

- 최근 수출입 동향

- (전력 순수입국) 급증하는 국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로 라오스, 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
- (수입) 변압기, 송배전케이블, 차단기·스위치·배전반, 계측기·스마트미터 기준 중국이 1위(60.7%)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2위

베트남 발전설비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 국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중국 | 1,873(44.5) | 1,548(54.5) | 2,282(60.7) | 47.4 |
| 한국 | 738(17.5) | 390(13.8) | 429(11.4) | 9.8 |
| 일본 | 186(4.4) | 154(5.4) | 168(4.5) | 8.7 |
| 말레이시아 | 509(12.1) | 102(3.6) | 153(4.1) | 49.8 |
| 인도네시아 | 114(2.7) | 103(3.6) | 137(3.7) | 33.3 |

주1: HS코드 850421, 850422, 850423, 850431, 850432, 850433, 850434, 854449, 854460, 853510, 853521, 853529, 853530, 853540, 853710, 853720, 902830, 903031, 903032, 903033 기준

주2: 괄호안은 수입액 기준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alas('25년 9월)

베트남 발전설비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 국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중국 | 529.8(30.7) | 555.6(30.1) | 608.9(27.6) | 9.6 |
| 한국 | 176.2(10.2) | 163.9(8.9) | 264.9(12) | 61.6 |
| 일본 | 143.3(8.3) | 159.8(8.7) | 221.4(10) | 38.5 |
| 말레이시아 | 157.9(9.1) | 159.2(8.6) | 166.8(7.6) | 4.8 |
| 인도네시아 | 42.5(2.5) | 40.2(2.2) | 122.5(5.6) | 204.6 |

주1: HS코드 850421, 850422, 850423, 850431, 850432, 850433, 850434, 854449, 854460, 853510, 853521, 853529, 853530, 853540, 853710, 853720, 902830, 903031, 903032, 903033 기준

주2: 괄호안은 수입액 기준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alas('25년 9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전력시장) 국영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및 점진적 개방

*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전력구매제도(DPPA)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

- 베트남 전력공사(EVN)이 송배전, 소매 등 사실상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발전 사업 주도

- 페트로베트남(PVN), Vinacomin 역시 각각 가스 및 석탄화력 발전에 참여하는 주요 국영기업

- (신재생에너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주도 성장

-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참여 활발

(참고) 베트남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 기업명 | 진출 현황 |
|-----------------------|--|
| JINKO SOLA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셀 제조 중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160,000명 이상 직원, 193개 자회사 35개국 생산기지 보유, 연평균 매출 약 1,400억 달러를 기록한 세계 최대 태양광 셀 제조사 • 2021년 총 25억 달러 투자, 고용자수 8,000여 명 |
| JA Sola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셀 및 구성품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최초 베트남 진출 후 베트남 북부 내 4개 제조공장 운영 중 - 주요 생산능력은 실리콘 봉 2.5GW/년, 실리콘 웨이퍼 5GW/년, 고효율 태양광 셀 5GW/년 • 총 투자액 약 10억 달러 |
| Delta offshore Energ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남부 박리에우성 LNG 복합화력 발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800MW, 2024년 발전소 완공 / 2단계 : 3,200 MW, 2027년 말 완공예정 - PPA 계약 협상, 환전 메커니즘, 신용 보증 등 문제로 프로젝트 지연 중 • 2020년 총 31억 3,000만 달러 투자 |

| 기업명 | 진출 현황 |
|---------------------|--|
| Vina Capit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 광짜성, Hai Lang 1 LNG 발전 및 LNG 터미널 건설,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발전용량 3,000MW급 롱안 LNG 발전소 1,2 프로젝트 개발 - 타당성 조사 완료 및 PPA 계약 협상 중이며 PV Gas와 파이프라인 관련 협의 진행 중 - 2025년 말 계약, 2026년 착공, 2029년 가동 예정 • 2022년 총 31억 3,000만 달러 투자 |
| 남동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 광짜성, Hai Lang 1 LNG 발전 및 LNG 터미널 건설,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T&T 그룹, 한화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 2029년 상업운전 목표 - 발전용량 1.5GW급 - 현재 타당성 평가 진행 및 정부 사업 최종 승인 요청 중 • 2021년 총 15억 달러 투자 |
| 두산에너빌리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남부 광짜성 OMON4 화력발전소사업 EPC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에너지 기업 석유개발공사(PVN)가 발주 - 두산 에너빌리티는 파트너사인 베트남 제2전력 건설 컨설팅(pec2)와 컨소시엄 참여 - 2028년 12월 상업운전 목표 • 총 계약규모 약 8억 달러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청정에너지)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LNG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높음
 - * 한국 컨소시엄이 LNG 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진출
- (핵심광물)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과의 협력 모색

□ 기회 요인

- (정부 정책) 베트남 정부는 PDP8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장려
 -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해 약 155억 달러의 금융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기회 확대
- (인프라 확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현대화 및 확충이 시급하여 관련 인프라 시장의 기회 요인 존재
 - * 개정 PDP8에 따라 2030년까지 노후화된 송배전망(Grid) 개발에만 약 163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 등 전통적인 기자재 및 스마트그리드 관련 첨단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다. 바이오·의료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의약품) 의료 서비스 전문화와 병원 중심 진료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Statista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규모를 2025년 약 24억 달러, 2030년 31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세 예상
 - * 항암제·당뇨병 치료제·면역억제제 등 고기능성 전문의약품 중심 구조,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현지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 약 35% 수준 유지
 - (의료기기) 병원 서비스 고도화 및 민간 의료 확충에 따라 고기능 의료장비 수요가 확대되며, Statista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2025년 17억 달러에서 연평균 7.1% 성장해 2030년 24억 달러 달성 전망
 - * 심장학·정형외과·진단영상 장비 등 고부가 품목 중심의 수입 의존형 시장 구조 지속
 - (의료 서비스) 베트남 의료비 지출은 2024년 기준 GDP의 4.7% 수준이며, 민간의료 지출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 전체 의료비 중 민간 부담이 약 48.2%로 절반에 육박하고, 민간 보건지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82억 달러 규모로 지속 확대 추세

베트남 의료비 현황 및 전망

(단위: US\$십억,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정부보건의료 지출 | 8.5 | 8.9 | 9.7 | 10.0 | 10.3 | 10.7 |
| 민간보건의료 지출 | 7.9 | 8.2 | 8.7 | 8.9 | 9.0 | 9.0 |
| 총 의료비 | 16.4 | 17.0 | 18.4 | 18.9 | 19.3 | 20.1 |

주: 2025~2028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기업현황) 자국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기초 소모품 생산에 머물러 있으며, 민간 의료서비스는 Vinmec 등 대형병원 네트워크가 주도
- 최근 수출입 동향
 - (높은 수입 의존) 의약품 원료 및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 (수입) 2024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10.3%의 점유율로 2위 공급국이며, 중국(13.2%), 대만(9.8%), 일본(9.2%)이 주요 공급국

베트남 의약품·의료기기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 국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중국 | 1,736(12.1) | 1,737(12.8) | 2,400(13.2) | 38.2 |
| 한국 | 1,370(9.6) | 1,408(10.4) | 1,879(10.3) | 33.5 |
| 대만 | 931(6.5) | 840(6.2) | 1,786(9.8) | 112.8 |
| 일본 | 1,697(11.8) | 1,249(9.2) | 1,572(9.2) | 112.8 |
| 미국 | 931(6.5) | 876(6.5) | 1,007(5.5) | 15.0 |
| 전 세계 | 14,343 | 13,578 | 18,245 | 34.4 |

주1: HS코드 제30류 및 제9018호~9022호 기준

주2: 괄호안은 수입액 기준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alas('25년 9월)

- (수출) 2024년 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5.9%의 점유율로 6위 수출대상국이며, 미국(17.8%), 일본(14.4%), 중국(12.5%)이 주요 수출시장

베트남 의약품·의료기기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 국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증감률 |
|------|-----------|-----------|-----------|-------|
| 미국 | 485(16.1) | 500(17.5) | 520(17.8) | 4.1 |
| 일본 | 652(21.7) | 438(15.3) | 419(14.4) | -4.4 |
| 중국 | 350(11.6) | 363(12.7) | 364(12.5) | 0.2 |
| 네덜란드 | 203(6.8) | 214(7.5) | 278(9.5) | 30.1 |
| 벨기에 | 185(6.1) | 235(8.2) | 209(7.2) | -10.7 |
| 한국 | 150(5.0) | 185(6.5) | 171(5.9) | -7.4 |
| 전 세계 | 3,010 | 2,860 | 2,917 | 2.0 |

주1: HS코드 제30류 및 제9018호~9022호 기준

주2: 괄호안은 수출액 기준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alas('25년 9월)

□ 현지 주요기업 및 최근 동향

• 현지 주요기업

- (제약) DHG Pharmaceutical, Traphaco, Imexpharm 등이 대표적인 로컬 선도기업으로, 제네릭 중심의 내수 시장을 견인. Sanofi, GSK, Roche 등 다국적 기업은 항암제·당뇨병 치료제 등 고기능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 유지
- (의료기기) Vinamed, Vikomed, USM Healthcare 등이 국산 장비 및 일회용 의료소모품 시장을 담당하며, Terumo(일본), B. Braun(독일), Medtronic(미국), Siemens(독일)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고기능 진단·영상·정형외과 장비 시장을 주도

- (민간의료) Vinmec, Hoan My, FV Hospital 등이 대표 기관으로, 고급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장 중이며, 국제 기준 의료시설 인증(JCI) 취득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

- 협업 수요

- (R&D 및 기술 이전) 베트남 현지 제약사 대부분은 R&D 역량이 부족하고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및 R&D 협력 수요 존재
- (현지 생산·유통) 외국계 기업은 의약품 직접 유통이 금지되어 현지 파트너와 협력이 필수적. 정부가 자국 생산을 장려함에 따라 현지 기업과의 협작을 통해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AI) 정부 주도의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라 AI 기반 진단, 스마트 병원 솔루션,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 수요 존재

(참고) 베트남 제약바이오산업 국내 기업 베트남 진출 현황

| 기업명 | 진출 현황 |
|-----------|---|
| 동화약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약국 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의 지분 51% 인수 • 일반의약품(OTC)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국 체인을 460개로 확장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ung Son Pharma는 1997년 설립되어 베트남 남부 지역 내 140여 개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360억 원 매출 기록 |
| 셀트리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베트남 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주요 병원들에 자사 제품 등록 및 허가 취득 중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n그룹 산화 Vinmec 국제종합병원과 협업 |
| 동구바이오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소재 제약사인 필인터파마(PHIL Inter Pharma)의 모기업 필인터내셔널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판매를 위한 제품 위수탁 개발·생산·공급 등 관련 MOU 체결 |
| 메디톡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현지 유통사 PCVN과 ‘뉴라덤’ 공급 계약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VN은 베트남 전역에 500개 이상 병원과 스파 등을 주요 영업처로 확보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회사 |
| 삼진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제약사 OPC Pharmaceutical과 MOU 체결. 완제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베트남 유통 진행 |
| 제뉴원사이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소화성궤양용제 ‘뮤날스 혼탁액’을 베트남 의약품청(DAV)에 제네릭의약품으로 등록 및 유통 • 2024년 베트남 제약사 이멕스팜(Imexpharm)과 기술 이전 업무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현지에서 제품 직생산 본격화 |
| JW중외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베트남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 유비팜(Euvipharm) 지분 100% 인수 |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베트남 첫 수출, 2001년 100% 지분 투자로 베트남 법인 설립 • 2004년 호치민 부근 주요 산업단지인 빈증 VSIP 공단 내 공장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식약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취득 - 베트남 식약청 GMP 인증 취득 |

| 기업명 | 진출 현황 |
|---------------|--|
| 신풍대우파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베트남 진출 및 현지 생산 의약품 판매 -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부터 최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제품 범위 확대하며, 내수 시장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경쟁 중 |
| 대웅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베트남 대형제약사 트라파코(Trapaco)의 일정 지분 인수 • 2019년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동의함에 따라 현지 입찰 그룹으로 진입 |
| 대원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베트남 진출 • 2016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보청기와 같은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위주 판매 |
| 삼일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대표사무소 개소 및 2018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 글로벌 점안제 CDMO 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진행 - 최근 베트남 의약품청(DAV)으로부터 GMP 인증 취득 |
| 씨티시바이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 사료첨가제를 비롯한 보조사료와 동물용 의약품 등 대부분 동물용 제품 생산 |
| 동성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스롱액(멀미약), 굿플러스(마시는 숙취해소제), 이지엔(염색약) 등 다양한 제품군 유통 |
| 서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건강식품·의약품용 캡슐 제조 베트남 1공장, 2014년 베트남 2공장 준공 |
| 종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 면역억제제 사이풀엔과 마이렙트, 고혈압치료제 칸데모어플러스, 항생제 크목실린 등 전문의약품 유통 |
| 한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헬스케어 유통전문회사 안틴팟(An Thinh Phat)과 전략적 제휴 체결 |
| 조아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 의약품 유통법인 TGSK 설립 후 어린이 건강기능 음료 ‘스마트디노’와 ‘롱디노’의 현지 유통 |

자료: 현지 언론 등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기회 요인

- (치과용 장비) FitchSolutions는 치과제품 분야가 2024–2029년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특히 한국은 치과용 장비 및 소모품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 진출 유망
- (첨단장비) 정부의 ‘스마트 병원’ 정책과 민간 병원의 서비스 고급화 경쟁으로 인해 AI 기반 영상 진단 솔루션, 원격의료, 병원정보시스템(HIS) 등 첨단장비 수요 증가
- (온라인 유통) 개정 의약품법은 외국계 기업의 일반의약품 전자상거래 유통을 허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 마련

* 관련 규정 : Law No.44/2024/QH15('24년 11월 21일)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 (교역)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간의 3위 교역국
 - (투자) 한국은 베트남의 누계 기준 1위 투자국으로 약 1만 여개의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
 - (FTA) 한–베트남 FTA(VKFTA), 한–아세안 FTA(AKFTA), RCEP 등 복수 협정에 동시 가입.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품목 ①) 전기·전자부품 및 첨단소재
 - (수요) 삼성·LG 등 대기업 진출에 따른 현지 공급망 생태계 구축 수요 증가
 - (강점) 고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 등 첨단 분야 기술 보유
 - (활용) VKFTA·AKFTA·RCEP 하에서 대부분의 전자부품 HS 품목 무관세 및 저율로 가격경쟁력 확보
- (품목 ②) 기계·산업설비 및 부품
 - (수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업 자동화·생산설비 수요 지속 확대로 현지 제조업 고도화 정책과 연계한 기계류·공작기계·로봇장비 수요 증가
 - (활용) VKVFTA·AKFTA를 활용한 관세 절감(5~15 → 0%)
- (품목 ③) 의약품·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제품
 - (수요) 중산층 성장과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으로 수입 의약품·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수요 증가
 - (강점) 의약품 GMP·의료기기 ISO13485 기반 기술 우위로 현지화 생산 및 공동 연구 유망
 - (활용) RCEP 누적원산지 조항 활용 시 한–아세안 원료 사용 제품도 특혜 관세 적용 가능
- (품목 ④) 화장품·소비재
 - (활용) K-콘텐츠 기반 브랜드 경쟁력과 수요 성장
 - (활용) VKFTA에서 대부분의 화장품류·가공식품 무관세화
- (품목 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사업 관련 산업체
 - (수요) 탄소중립 달성을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분야 협력 수요 확대
 - (활용) FTA 활용 설비·부품 관세 절감



성공 사례 : ATIGA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한 관세 절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

- (문제) 현지 생산 후 아세안 국가로 수출 예정인 A사, ATIGA 원산지 기준 미충족 문제에 직면
- 필수 중간재의 한국 및 아세안 역내국 수입으로 현지 부가가치율이 낮아,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해결) 아세안 협정 원산지관리규정(Circular No.22/2016/TT-BCT)에 따른 ‘원산지 누적 기준’ 활용
- A사는 원산지 누적 기준 활용 시, 아세안산 원부자재 및 중간재 사용 부분이 원산지로 인정되어 ATIGA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다자간 협정의 ‘누적 기준’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및 수출경쟁력 확보가 중요

□ (G2G) 2025년 8월 또 럼 서기장 방한으로 살펴본 국가간 협력 유망분야

- (공급망)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협력
 - (투자 계획) 2025년 하반기부터 5년간 한화 총 166억 원을 투자하여 베트남에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
 - (지원 내용) 한국은 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선광·제련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지도 및 전문 인력양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
 - (기대 효과)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 (에너지)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전환 협력
 - (원전 협력)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공조 강화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여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지원
 - (LNG 인프라) LNG 발전소 및 터미널 건설 등 가스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
- (방산·국방)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정례 협의체 재개) 17년 만에 차관급 협의체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국방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
 - (협력 범위)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방산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양국 간 안보 신뢰 증진

- (인프라) 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 (고속철도)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
 - (스마트시티) 베트남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스마트 교통, 디지털 정부, 친환경 도시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R&D·기술)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구축
 - (공동 R&D)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
 - (인재 양성) 베트남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 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

성공 사례 : H사 방산 수출 성공사례

- (개요) 국내 방산기업 H사, 베트남에 약 2억 5,000만 달러 규모 주력 방산차량 수출 계약 성공
- (내용) 2025년 국내 방산기업 H사 베트남에 주력 방산차량 납품을 계약하고 2025년 말까지 인도 예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품목 관련 한국의 동남아 시장 최초 진출 사례로 양국이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했음을 보여줌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항만·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 (항만 대형화 및 환적 허브 전략 추진) 까이맵–티바이(호치민시 관할), 락후옌(하이퐁), 꺼저 환적항 (호치민시 소재)을 국제적 관문 항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 * 배후단지 및 물류센터 수요 동반 증가 예상되며, ‘비전 2050 – 베트남 2021~2030년 항만시스템 개발 계획 수정안’에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 명시
 - (대형 국책 프로젝트 가속화) 2024년 말 베트남 국회, 북남고속철도(1,541km, 약 670억 달러) 건설 계획 승인* 및 2025년 10월 29일, ‘비전 2050 – 베트남 2023~2030 철도망 개발 계획 수정안’에 따라 하노이–꽝닌 고속철도 사업(총연장 120.4km, 총사업비 53억 달러)이 신규로 포함**
 - * 2027년 착공 및 2035년 1단계 운행 목표
 - ** 빈스피드 고속철도투자개발주식회사(Vinspeed High-Speed Railway Investment and Development JSC)가 제안하였으며, 2025년 4분기 투자승인 후 2028년 1분기 상업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

- (공항 허브화 추진) 롱탄국제공항 1단계(141억 달러) 2025년 말 완공 목표 및 2026년 상업 운영 목표. 이 외에도 자빈(Gia Binh) 공항 건설(75억 달러), 푸꾸옥(Phu Quoc) 공항 확장(19억 달러), 깃비(Cat Bi) 공항 제2터미널(1억380만 달러), 까마우(Ca Mau) 공항 확장(9,230만 달러) 등이 있으며, 망덴(Mang Den, 꼰뚬성), 반퐁(Van Phong, 카인호아성), 꽝찌(Quang Tri, 꽝찌성), 사파(Sapa, 라오까이성) 등의 신규 공항 건설도 계획 단계에 있음
- * 공항 연계 도로, 철도 등 주변 교통망 패키지 개발 수요 다수 존재

(참고) 베트남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단위: US\$백만)

| 프로젝트명 | 규모 | 현황 | 완공예정 |
|----------------------------|--------|--|-------|
| 하노이-호치민 북남고속철도 | 67,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민간 투자로 전환 • 2026년 타당성 조사 완료 후 9월 국가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 2026년 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계획 • 2035년 프로젝트 1단계 운행 목표 | 2050년 |
| 롱탄국제공항 | 14,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말 1단계 완공 목표이나 2026년 중 상업 운행 전망 • 2030년까지 국제선 전노선 이전 예정 • 2040년 완공 목표 • 떤선녓공항과 롱탄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개발 추진 중 | 2040년 |
| 호치민~A22 컨터시(Can Tho) 철도 | 9,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km 구간 타당성 조사 진행 중 • 2026년 토지 정리 및 기술 설계 완료 목표 • 2027년 건설 시작, 2025년 완료 및 노선 운영 예정 | 2029년 |
| 하노이 4번 순환도로 | 7,1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토지 98.5% 개간 완료, 진도율 52.6% • 하노이 병행 노선 구간(58.2km) 부지정리 문제로 기존 구간 완공 시점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일정 지연 | 2027년 |
| 낀저 국제환적항 | 6,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베트남 총리 투자정책 승인 • 2025년 10월 호치민시 투자자 선정 추진 중 | 2030년 |

자료: 현지 언론, FitchSolutions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비전 2050-베트남 2021~2030 철도망 개발계획 개정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0월 29일 총리결정문 Decision No.2404/QD-TTg를 통해 '비전 2050-베트남 2021~2030 철도망 개발 계획'을 개정 승인
 - 기존 철도 효율화 및 신규 노선 건설을 병행 추진하며, 북남고속철(1,541km)과 하노이 - 광닌(124km) 노선 정식 반영

베트남 철도망 발전 계획에 따른 노선별 조정 현황

(단위: km, mm)

| 연번 | 구간 | 길이 | 궤간 | 로드맵 | |
|----------|---|-------|-----------------|-------|----------|
| | | | | 2030년 | 2030년 이후 |
| 기존 철도 | | | | | |
| 1 | 하노이(Ha Noi)–호치민(Ho Chi Minh) | 1,726 | 1,000 | ○ | ○ |
| 2 | 하노이(Ha Noi)–라오까이(Lao Cai) | 296 | 1,000 | ○ | ○ |
| 3 | 하노이(Ha Noi)–하이퐁(Hai Phong) | 102 | 1,000 | ○ | ○ |
| 4 | 케(Kep)–하롱(Ha Long)–까이란(Cai Lan) | 108 | 1,000, 1,435 | ○ | ○ |
| 신규 건설 철도 | | | | | |
| 1 | 라오까이(Lao Cai)–하노이(Ha Noi)–하이퐁(Hai Phong) | 391 | 1,435 | ○ | ○ |
| 2 | 비엔호아(Bien Hoa)–붕따우(Vung Tau) | 132 | 1,435 | ○ | ○ |
| 3 | 하노이(Ha Noi)–동당(Dong Dang) | 156 | 1,435 | ○ | ○ |
| 4 | 호치민(Ho Chi Minh)–록닌(Loc Ninh) | 128 | 1,435 | ○ | ○ |
| 5 | 호치민(Ho Chi Minh)–껀터(Can Tho)–까마우(Ca Mau) | 320 | 1,435 | ○ | ○ |
| 6 | 붕양(Vung Ang)–무자(Mu Gia) | 105 | 1,435 | ○ | ○ |
| 7 | 탑짬(Thap Cham)–달랏(Da Lat) | 84 | 1,435 | ○ | ○ |
| 8 | 다낭(Da Nang)–꼰뚱(Kon Tum)–자라이(Gia Lai)– 닥락(Dak Lak)–닥농(Dak Nong)–빈프억(Binh Phuoc) | 550 | 1,435 | | ○ |
| 9 | 남딘(Nam Dinh)–타이빈(Thai Binh)–하이퐁(Hai Phong) | 64 | 1,435 | | ○ |
| 10 | 하이퐁(Hai Phong)–하롱(Ha Long)–몽까이(Mong Cai) | 187 | 1,435 | ○ | ○ |
| 11 | 하노이(Ha Noi)–김썬(Kim Son) | 31 | 1,000, 1,435 | ○ | ○ |
| 12 | 하노이(Ha Noi)–탁로이(Thach Loi) | 54 | 1,435 | | ○ |
| 13 | 호치민(Ho Chi Minh)–목바이(Moc Bai) | 61 | 1,435 | | ○ |
| 14 | 안빈(An Binh)–사이공(Sai Gon)–떤끼엔(Tan Kien) | 33 | 1,435 | ○ | ○ |
| 고속철도 | | | | | |
| 1 | 북남고속철도 | 1,541 | 1,435 | ○ | ○ |
| 2 | 하노이(Ha Noi)–꽝닌(Quang Ninh) | 124 | 1,435 | ○ | |

자료: Decision No.2404/QD-TTg('25년 10월 29일)

- 항만·공항·건조항·물류센터·도시철도 간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며, 남부 응이썬(Nghi Son)·하엡프억(Hiep Phuoc) 항만과 남부 롱탄(Long Thanh) 공항, 북부 노이바이(Noi Bai)·신공항을 잇는 노선이 새롭게 포함
 - * 주요 물류센터가 철도와 직접 연계. 하노이·호치민 철도 허브는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를 통합 운영하도록 재편

베트남 철도망 발전 계획에 따른 교통망 연계 계획

| 연번 | 연결역 | 연결대상 | 연결노선 |
|-------------|--|--|------------------|
| 항만 | | | |
| 1 | 쭝럼(Truong Lam) | 타인호아(Thanh Hoa) 응이썬(Nghi Son)항 | 하노이-호치민 |
| 2 | 타인득(Thanh Duc) | 호치민(Ho Chi Minh) 히엡프억(Hiep Phuoc)항 | 호치민-컨터 |
| 공항 | | | |
| 1 | 롱탄(Long Thanh) | 롱탄(Long Thanh) 공항 | 2·6호선, 북남고속철 |
| 2 | 하노이 거점 역 | 노이바이(Noi Bai) 공항, 하노이 신공항(자빈[Gia Vinh] 공항) | 1·1A·6호선 |
| 3 | 빙찌에우(Binh Triu), 투티엠(Thu Thiem) | 호치민(Ho Chi Minh) 떤선녓(Tan Son Nhat) 공항, 롱탄(Long Thanh) 공항 | 2·6호선 |
| 물류센터 | | | |
| 1 | 다이동/르엉따이 (Dai Dong/Luong Tai) | 흥옌(Hung Yen) 반렴(Van Lam)항, 박닌(Bac Ninh) 자빙(Gia Binh) 항 | 라오까이-하노이- 하이퐁 |
| 도시철도 | | | |
| 1 | 응옥호이(Ngoc Hoi), 옌비엔(Yen Vien), 자렴(Gia Lam), 옌트엉(Yen Thuong), 트엉띤(Thuong Tin) | 하노이(Ha Noi)-하이퐁(Hai Phong), 하노이(Ha Noi)-호아빈(Hoa Binh), 하노이(Ha Noi)-빈옌(Vinh Yen) 노선 등 | |
| 2 | 투티엠(Thu Thiem), 안빈(An Binh), 떤끼엔(Tan Kien), 짱범(Trang Bom) | 호치민(Ho Chi Minh)-떠이닌(Tay Ninh) 등 | |

자료: Decision No.2404/QD-TTg('25년 10월 29일)

□ 한국 기업 참여 동향

- (건설) 신도시·아파트 개발에 한국 건설사들이 활발히 참여
 - 일부 프로젝트는 행정·토지 문제로 공사 중단 또는 투자 철회 리스크 존재

〈하노이 대우스타레이크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대우그룹 공식 홈페이지

(참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신도시·아파트 프로젝트 현황

| 기업명 | 프로젝트명 | 현황 |
|------|-------------|--|
| 대우건설 | 스타레이크시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삼성 R&D센터 완공 • 2026년 신라호텔 부지 완공 목표 • 2단계 부지 내 주거복합시설 착공 |
| | 끼엔지앙 신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투자자 승인 및 사업 추진 • 2025~2035년 3억 9,000만 달러 투자 예정 |
| GS건설 | 나베 신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가치 재평가 지연 및 행정 절차 지연 문제로 공사 중단 |
| 롯데 |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감정 절차 지연과 법규 변경으로 투자비용 증가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투자 철회 |
| LH | 동남신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사업 착수 예정 |

자료: 현지 언론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플랜트) LNG 등 화력발전소 수주 활발

- 베트남 전력시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 정부 주도의 LNG 발전 프로젝트 확대, 탈탄소화 추진, 그리고 양수수력발전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베트남 전력시장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수력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수행, LNG 발전소 개발, 석탄화력발전소 참여 및 시공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이에 따라 개정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에 포함된 LNG 발전소 및 BESS 프로젝트에 개발자 및 EPC 계약자 형태로의 추가 참여가 기대됨
- 2026년부터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Direct Power Purchase Agreement) 본계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송전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착수와 ESS·계통 안정화 설비 발주 확대 전망
- 개정 PDP8에는 총 21개의 LNG 발전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LNG 및 가스화력 발전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SK그룹은 베트남 전역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응에안(Nghe An)성과 타인호아(Thanh Hoa)성 지역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LNG 발전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 등이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참고) 국내기업의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수주 현황

| 기업명 | 프로젝트명 | 현황 |
|------------------|-----------------------|---|
| 한국전력 | 봉양2화력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북부 하띤성 소재 1,300MW급 2기 발전소 사업 2025년 1호기 9월 준공, 2호기는 3분기 시험운전 예정 총사업비 22억 달러(한국전력 40% 투자) |
| 두산에너빌리티 | 오몬4 복합화력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 꺼터시 소재 1,155MW급 발전소 사업 2025년 수주, 2028년 준공 예정 총사업비 약 9,000억 원 |
| | 티바이 LNG 터미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 까이맵 산업단지 소재한 베트남 최초 LNG 터미널 2023년 준공 총사업비 2억 8,500만 달러 |
| 삼성물산 | 연짜 3·4호 LNG복합화력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 동나이 소재 1,600MW급 2기 발전소 사업 2025년 4호기 점화 성공 및 연말부터 시험가동 예정 총사업비 8억 3,500만 달러(삼성물산 약 6100억 원 규모 투자) |
| | KN Srepok 3 | |
| | KN Ialy Gia L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KN홀딩스와 협력 864MW 규모 부유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합의 |
| | KN Iay Kon Tum | |
| 가스공사- 남부발전-한화 | LNG 하이랑(Hai La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북부 꽝찌 소재 1,500MW급 발전소 사업 총사업비 23억 달러 |
| GS에너지 | LNG 롱안(Long An)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 롱안성 소재 3,000MW급 발전소 사업 총사업비 23억 달러 |

자료: 현지 언론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다. 공급망(자원개발)

*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외 현재 검토·진행 중 프로젝트 없음

□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 (ODA)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
 - (목적) 선광·제련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 기술 지도, 인력양성 등을 통해 한-베 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베트남 국립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VIMLUKI)가 2025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69 |
| 2. 진출전략 | 71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공산당 일당 체제 기반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 2026년 제14차 전당대회를 통해 향후 5개년 국가 발전 방향성 확정 예정
- 반부패 정책 강화로 행정 절차의 지연과 경직성 심화 우려
- 부처 통폐합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단기적 행정 혼선 가능성
- 산업정책·투자유치 관련 주요 결정이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집중



경제(Economic)

- 5~6%대 성장세 유지 속 점진적 둔화 국면 진입
- 미국 상호관세 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 영향 확대
-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로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상존
- 1억 인구 기반의 견고한 내수시장 구조가 경기 완충 역할 수행
- 산업 고도화·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중장기 투자 수요 확대



사회문화(Social)

- MZ세대의 소비시장 주도와 낮은 브랜드 충성도
-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소비 패턴 및 옴니채널 쇼핑 선호 뚜렷
- 건강·웰니스·윤리소비 등 가치 중심 소비 트렌드 확산
- ‘가격’과 ‘가치’로 양분되는 소비 양극화 심화
- 핵가족화·고령화에 따른 신규 소비계층 부상



기술(Technological)

-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허브’로의 전환 가속화
-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확장에 제약
-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 및 스마트 기술 수요 증가
- 탄소중립·에너지 효율화 중심의 녹색기술 투자가 확대

SWOT 분석

강점(Strength)



- 반도체·자동화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보유
- 对베트남 누적 투자 1위로서의 확고한 산업 기반
- K-콘텐츠 확산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형성
- G2G 협력 기반을 통한 ODA·에너지·광물 등 전략 분야 진출 용이
- VKFTA·RCEP 등 다층적 FTA 네트워크로 확보한 관세 경쟁력

약점(Weakness)



-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 심화 및 베트남 내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 대기업·첨단산업 중심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중소기업 진입 부담
- 일부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의 지연 및 철회 사례 존재
- 복잡한 인허가·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개시 지연 및 행정 비용 부담
- 현지 파트너·유통망 확보의 한계로 소비자·서비스 분야 확장 속도 둔화

기회(Opportunity)



-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겸한 '이중시장' 진입 기회
-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탈중국 공급망 재편 수요로 고부가 중간재 기회 확대
- 반도체·AI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기술·투자 진출 여건 강화
- 남북고속철·개정 PDP8·항만개발 등 인프라·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 의료·전자상거래 등 新소비시장 성장세 지속

위협(Threat)



-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 리스크 확대
-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공급망 경쟁 심화
- 산업단지·전력·인력 부족 등 구조적 병목 현상 지속
- 행정·규제 불확실성 및 세제 변화 리스크
- 제14차 전당대회 이후 정책 재편 과정의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 반덤핑, 원산지 검증 강화, 소액면세 폐지 등으로 행정 리스크 증가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기술 파트너십을 통한 첨단산업 선점
- K-프리미엄 기반 고부가 내수시장 집중 공략
- 국가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동반 진출 확대
- 현지 유망기업과의 공동개발·인재양성 협력 강화
- 스마트시티·그린테크 중심의 장기 파트너십 구축

가치사슬 상향을
통한 新시장 선점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초격차 기술력 기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반도체·전장소재 중심 탈중국 대체 거점화 추진
- G2G 협력 기반 전략광물·에너지 자원 선점 확대
- 원산지 관리·추적체계 강화로 대외 변수 안정화

자원 선점 및
고부가가치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가격 경쟁력 극복
- 현지 유력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진입 가속
- 민관 파트너십 기반 정책 연계형 협력사업 확대
- 헬스케어·친환경 중심 신소비시장 브랜드 포지셔닝

외부기회 활용
사업 모델 전환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화로 조달 리스크 완화
- 세제·행정 변화 대응형 복수법인 구조 구축
- 환경·통상 규제 대응 역량 및 준법 체계 강화
- M&A·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입 불확실성 분산

방어적 성장을
통한 안정성 확보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에너지

교통·물류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반도체·AI 등 베트남 국가전략산업을 ‘기술협력’으로 공략
 - R&D·인력양성 중심의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및 현지 전문인력 공동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확보
 - AI·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및 솔루션 개발 확대를 통한 데이터·헬스케어·제조 등 산업별 AI 응용기술 공동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 현지 R&D센터 설립 및 실증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설계·패키징 분야 중심의 연구거점 운영으로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연계 강화
- 팀코리아 활용, 에너지산업을 ‘전주기 연계형’ 모델로 공략
 - LNG·원자력 중심의 금융-EPC-운영을 결합한 ‘금융 연계형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반 통합형 에너지 솔루션 제시
 - 신재생에너지·송배전망 분야에서 ‘DPPA+ESS’ 결합형 통합 모델 선점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및 현지 기자재 공급망 확대
 -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통한 공공-민간 복합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금융·기술·운영을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 생태계 강화

-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를 ‘패키지형’ 모델로 공략
 - 북남고속철·롱탄공항·환적항 등 메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EPC, 첨단기술, 운영이 결합된 통합형 ‘패키지 제안’을 통해 고부가 종합 솔루션 공급자 위상 확보
 - 차량·신호·공항 IT·항만 자동화 등 핵심 시스템과 복합역사·상업시설·MRO를 연계한 기술·운영 통합 수출 모델로 프로젝트 다변화 추진

전략 ①**반도체·AI 등 베트남 국가전략산업을 ‘기술협력’으로 공략****전략 수립 배경**

- (동향) 글로벌기업(삼성전기, 인텔, 앰코 등) 패키징 공장 진출 및 퀄컴, 비엣텔(Viettel) 등 국내외 주요기업 AI 데이터센터 건설 활발
 - 베트남 반도체사업 FDI 116억 달러(174건) 유치
- (진출 Point) 우리 기업 AI·반도체 강점 기반 베트남 산업 협력 확대
 - 칩 생산 분야 한국 기업 선도, 정부·기업 협력 수요 증가
 - AI 연구·교육·상용화 노하우 및 현지 협력 통한 활용 가능

□ 현지 동향

- (산업 인프라) 베트남의 반도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민간 주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며 설계·테스트·패키징 중심의 산업 기반을 형성 중
 - 현재 설계기업 약 50개사, 패키징·테스트 기업 약 15개사가 활동 중이며, 설계 분야 엔지니어 7천 명, 패키징·테스트 분야 6천 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
 - AI 관련 학사과정 운영 대학도 10여 곳으로, 매년 약 1,7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기초 기술인력 저변을 확대 중
- 동향
 - (정부) 베트남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 MOU 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추진하며, 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과제로 지정

베트남의 반도체·AI 관련 주요국 협력 사례

| 협력국명 | 내용 |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C)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일본-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박사 250명 양성 지원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베-한 과학기술연구원(VKIST)과 협력, 반도체 연구 재단 설립 사업 지원 • KT그룹, Viettel과 베트남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진행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장학사업 및 국가혁신센터(NIC) 협력을 통한 반도체 연구비 지원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산업) Coherent의 현지 최초 웨이퍼 생산, FPT의 의료용 칩 개발, Viettel의 5G칩 설계, CT그룹의 패키징·테스트 공장 착공 등 고부가가치 공정 참여 사례 본격화

- (정부 정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특별인센티브)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기술 산업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세제·토지·관세 등 포괄적인 특별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

* 2025년 6월 발표된 디지털기업법(Law No.71/2025/QH15)에 근거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구체적 인센티브 내용은 향후 시행령(Decree) 등 관련 규정 점검 필요

- (직접재정지원) 투자지원기금(ISF)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R&D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

* 반도체·AI 분야 R&D센터의 초기 투자비용은 최대 50%, 칩·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제품 생산비용은 부가가치의 최대 3%까지 지원

* 관련 규정 : Decree No.182/2024/ND-CP('24년 12월 31일)

주요 기업의 베트남 반도체·AI분야 사업 확대 사례

| 기업명 | 주요 내용 |
|------|--|
| 엠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반도체 공장 설립 • 엔퐁 2C산업단지 내 23만m² 부지에도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장 설립 예정 • 2035년까지 총 16억 달러 투자 계획 |
| 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호치민시 사이공 하이테크파크(SHTP)에 조립 및 테스트(ATM)공장 설립 • 2021년 추가투자 4억 5,000만 달러 진행 • 현재 5G 제품 및 10세대 인텔코어 프로세스 등 생산 |
| 삼성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응웬성 공장에 반도체 칩 그리드 제품 생산라인 구축 • FCBGA(고집적패키지판)와 부품 등 생산라인 증설 추진 |
| 엔비디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베트남 내 AI 연구센터 및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 및 투자계획 발표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베트남 산업 전반에 AI 도입 가속도 활용 예정 • 현지 FPT, Viettel, VinBrain 등 기업에 엔비디아 AI 컴퓨팅 기술 활용 추진 |
| FP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 • 엔비디아 첨단 칩 및 소프트웨어 활용, 생성 AI 및 자율 시스템 등 개발 예정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유망 품목

- 반도체 분야

- (칩 설계·SW) 50여 개 설계기업과 7천여 명의 엔지니어를 기반으로 설계 툴, IP 라이선스 등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 (패키징·테스트) 앰코, 인텔 등 글로벌기업의 후공정 투자 활성화로 테스트·검사 장비, 자동화 솔루션 분야 유망
- (소·부·장) 현지 공급망 확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웨이퍼, 특수ガ스, 화학소재 등 핵심 소부장 시장 기회 증대

- (전력·차량용 반도체) 전기차(EV) 및 신재생에너지 성장이 MOSFET, IGBT, SiC 등 관련 반도체 수요 견인
- AI 분야
 - (AI 칩·엣지 컴퓨팅) Viettel, FPT 등 현지 기업의 AI 칩 설계 본격화로 NPU, GPU 등 고성능 하드웨어 시장 주목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정부 육성 정책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장비 수요 증가
 - (AI 소프트웨어·솔루션) 금융,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의 AI 도입 가속화로 음성·영상 인식, 챗봇 등 솔루션 활용 확대
 - (AI 교육·R&D) 연 1,700명 이상의 AI 인력 배출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AI 개발 툴, 연구용 서버 등 교육·연구 시장 유망
 - (스마트 제조) 제조업 고도화 흐름에 맞춰 반도체·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 장비, AI 기반 검사 솔루션 수요 확대

□ 진출전략

- 인재 개발 및 인력 교류를 통한 협력
 -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차세대 반도체 허브’로 부상 중이나, 핵심 기술·전문 인력·인프라의 부족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첨단 제조 기술·전문성이 부족하여 고부가가치 생산으로의 전환에 제약
 - 우리 기업은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연계 교육, 기술연수 등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진출 구조를 마련 가능
- AI 분야 공동 연구 및 솔루션 개발
 - 핀테크, 헬스케어, 블록체인, SaaS 등 AI 응용산업 영역에서 한국-베트남 공동 연구·솔루션 개발 추진
 - AI 엔지니어 수요 증가에 대응해 데이터 분석,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 분야별 기술연계 프로젝트 수행
 - 공동 연구·솔루션 개발을 통해 한국 기업은 베트남 시장 진출, 베트남 기업은 첨단기술 확보 기대 가능
- 베트남 내 R&D센터 설립 및 협력 프로젝트 수행
 - 우리 기업이 R&D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품질·인력·프로세스 통제력 확보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가능
 - 연구 성과를 현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실증·검증 플랫폼(테스트베드)으로 활용 가능

전략 ②**팀코리아 활용, 에너지산업을 ‘줄주기 연계형’ 모델로 공략****전략 수립 배경**

- (동향) 개정 PDP8 기반 에너지 대전환 가속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 '개정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을 통해 2030년까지 1,360억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며, LNG·신재생·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의 구조적 전환 추진
 - * 송배전망·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계통 안정화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며,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직접전력거래제(DPPA) 시범사업 시행
- (진출 Point)
 - * (LNG·원자력) 금융부터 EPC, 운영까지 아우르는 '팀코리아' 모델의 강점 활용
 - * (신재생에너지·송배전망) 핵심 기자재 분야의 기술 우위 바탕으로 시스템 통합 솔루션 공급 및 시장 선점

□ 현지 동향

- 개정 PDP8 기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본격화
 - (규모) 2030년까지 약 1,360억 달러 투자 계획이며, LNG 발전소·터미널, 원자력 발전,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 등 모든 부문에서 신규 투자 계획이 구체화 되는 중
 - (청정에너지 전환) LNG 밸류체인 구축 진행 및 2016년 보류되었던 닌투언(Ninh Thuan) 원전 부지 중심 논의 재개
 - * 2030~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닌투언 1·2호기 사업은 베트남 전력공사(EVN)과 베트남 에너지산업 그룹(PVN)이 투자자로 각각 지정된 상태로 1호기 원전의 경우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가 러시아 알렉세이 오베르죽 부총리와 구체적인 건설 협정에 대해 논의 진행
- 재생에너지 잠재력
 - 육상 및 연안풍력(On-shore & Near-shore Wind Power)
 - 육상풍력의 잠재 발전 규모는 약 221,000MW로 매우 크며, 2030년까지 육상풍력 발전용량은 26,066~38,029MW 수준에 이를 전망
 - 하띤(Ha Tinh), 빈딘(Binh Dinh), 닌투언(Ninh Thuan), 짜빈(Tra Vinh), 속짱(Soc Trang) 등 일부 성(省)은 수천 MW 규모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
 - 해상풍력(Off-shore Wind Power)
 - 해상풍력의 최대 기술적 잠재 규모는 약 600,000MW로 추정되며, 국내 전력 소비용으로는 2030~2035년 기간 동안 6,000~17,032MW, 2050년까지는 113,503~139,097MW 규모로 확대될 전망
 - 또한,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Green Ammonia) 등 신에너지 생산용 해상풍력은 2035년 15,000MW, 2050년에는 240,000MW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태양광(Solar Power)
 - 태양광의 총 기술적 잠재 용량은 약 963,000MW로, 지상형 837,000MW, 수상형 77,400MW, 건물형(옥상형) 48,200MW로 구분됨
 - 2030년까지 집광형 및 옥상형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총 설비 용량은 46,459~73,416MW, 2050년 까지는 293,088~295,646MW에 이를 전망
 - 특히, 2030년까지의 집중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목록에 따르면 북부지역(약 30,630MW)에 높은 비중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발전 보조전원이 부족한 지역에 전력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또한, 관개용 저수지 및 수력댐 수면을 활용한 부유식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수력(Hydro Power)
 - 수력발전의 최대 잠재 용량은 약 40,000MW로 2030년까지 대·소형 수력발전을 포함한 총 설비 용량은 33,294~34,667MW, 2050년까지는 40,624MW로 확대 전망
- 바이오매스·폐기물·기타 신에너지(Biomass, Waste-to-Energy, and Other New Energies)
 - 2030년까지 예상 개발 규모는 바이오매스 발전 약 1,523~2,699MW, 폐기물 발전(Waste-to-Energy) 약 1,441~2,137MW, 지열·바이오가스·조력 등 기타 신에너지 약 45MW로 추정.
 - 2050년까지는 바이오매스 발전 약 4,829~6,960MW, 폐기물 및 고형폐기물 발전 약 1,784~2,137MW, 지열 및 기타 신에너지 약 464MW 규모로 확대 전망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시장 제도 정비
 - (DPPA) 발전사(10MW 이상)와 대규모 소비자(월 20만kWh 이상) 간 직거래 허용으로 민간부문 참여 확대
 - (BESS 연계 인센티브) MOIT, 에너지저장장치(BESS) 연계형 태양광에 우대 발전차액지원(FiT)를 제공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계통 안정화 유도
 - (송전망 확충) 500kV 초고압망 증설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 2025년 내 준공 목표
 - (탄소시장 시범운영) 산업 부문의 전력 효율 개선 및 ESS 솔루션 수요 확대 전망
- (참고) 베트남 최초 LNG 터미널, ‘티바이(Thi Vai) LNG 터미널’
 - (의의)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행정구역 개편 이후 : 호치민) 푸미(Phu My) 소재 까이멥(Cai Mep) 산업단지 내 위치한 티바이(Thi Vai) 터미널은 베트남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저장 시설로, 2023년부터 남부 지역의 청정에너지 공급 거점 역할을 수행
 - * 2019년 삼성물산-PTSC 컨소시엄이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착공, 총 2억 8,500만 달러 투자. 수입 LNG 저장·재기화를 통해 연짜(Nhon Trach) 3·4호기 등 인근 가스발전소에 공급
 - (규모) 8만 5,000톤급 LNG 운반선 접안 및 연간 100만 톤 처리 가능하며, 18만m³ 용량의 LNG 저장탱크 1기, 기화·송출 설비, Jetty Modification(부두 시설로 접안 및 하역) 등으로 구성

□ 유망 품목

- (LNG) 터미널·발전소 EPC, 계통 연계, 산업단지 연계 수요
 - (터미널) PV Gas는 Thi Vai LNG 터미널 1단계 운영을 기반으로 2025년 말까지 EPC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터미널 처리능력을 연간 3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
 - * 베트남 동남부 지역의 LNG 공급 역량을 하루 2,200만~2,300만m³로 확대하기 위해 부유식 저장시설 (FSRU) 도입 검토 중
 - (발전소) 개정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Revision) 내 LNG 발전소 22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발전소 개발·투자 및 EPC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원자력/SMR) 금융 조달, EPC, 컨설팅, 안전 계측 시스템
- (송전·변전) GIS 변전소, 변압기, 케이블, HVDC, 동기조상기(FACTS) 등
- (재생에너지/ESS) 풍력 터빈 하부구조, 해저케이블, ESS·PCS, EMS, 마이크로그리드

□ 진출전략

- (LNG) ‘금융 연계형 밸류체인’ 패키지 제안
 - 터미널과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베트남의 자금 부담을 고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연계한 ‘금융 주도형’ 패키지 제안
 - * 까이맵(Cai Mep) LNG 터미널 사례와 같이 민간 지분 참여 모델을 활용, 자금 조달부터 연료 공급, 발전소 운영까지 전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 제시
 - LNG+수소 혼소 발전을 고려한 설계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기술 우위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및 송배전망) ‘DPPA+ESS’ 통합 솔루션 선점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원하는 대규모 소비자(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PPA와 BESS 솔루션’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 제공
 - 현지 민간 IPP(Trungnam 등)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 공동 개발
 - * 현지 파트너십 기반 케이블, 변압기 등 핵심 기자재 공급망 선점
 - 재무적·법적 역량이 우수하고 평판이 좋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법적 리스크 완화, 현지 당국 접근성 제고, 내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등의 이점 보유
 - * MOU 체결, 컨소시엄 구성,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 적극 활용 필요
 - 가스터빈, 전력관리시스템(PMS), ESS, 옥상형 태양광 등 첨단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강점을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 리스크

- 전력 판매량 비보장에 따른 매출 변동성
 - 베트남 정부가 시장 내 전력 판매량을 보장하지 않아, 발전사가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할 경우
 매출 불안정 및 현금흐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제도 관련 수익성 불확실
 - 물리적 DPPA에서 설정된 가격 상한으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이 제한되며, 전력 도매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커질 경우 프로젝트 수익성 저하 우려 존재
 - 또한,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부과하는 DPPA 송전망 이용료가 공식화되지 않아 비용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VND(동화) 부과 방식으로 환차손 발생 가능
- 2024년 개정 토지법에 따른 투자비 상승 리스크
 - 2024년 개정 토지법 시행으로 농지의 상업용지 전환 시 최대 10~20배의 지가 상승 부담이 발생,
 이로 인해 발전소 부지 조성비가 급등해 PPA 계약단가 및 투자회수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략 ③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를 ‘패키지형’ 모델로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동향) 국가 균형 발전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동남아 교통·물류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함
 - * 북남고속철도, 롱탄국제공항, 국제환적항 등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동시 추진
- (진출 Point) 첨단 시스템과 통합 솔루션 제공 역량
 - * 고속철도 차량·신호·통신 시스템, 공항 IT·보안 시스템, 항만 자동화 등 첨단기술 분야 높은 경쟁력 보유
 - * 복합역사개발, 상업 시설 기획·운영,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 관련 도시 개발과 물류 인프라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현지 동향

- 국가 주도 초대형 프로젝트 본격화
 - 국가 균형 발전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북남고속철도(670억 달러), 롱탄국제공항(141억 달러), 국제환적항만 등 핵심 인프라 사업 동시 추진
 - * 2026년은 롱탄공항 상업 운영 및 고속철 입찰이 가시화되는 핵심 분기점
 - 핵심 발주처는 베트남철도공사(VNR), 베트남공항공사(ACV) 등이며, 시공은 Vin그룹 계열, Cotteccons, Licogi와 같은 대형 건설사와 해외 EPC 협작
- 항만 대형화 및 환적허브 전략
 - 까이맵-티바이, 락후옌, 꺼저 환적항을 국제 게이트웨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 보유
 - 2024년 처리량이 1,098만 TEU로 확장 필요성 있으며, 배후단지 및 물류센터 수요 동반 확대 중
- 공항 허브화
 - 롱탄국제공항은 2026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계 도로,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패키지 수요 다대
- (참고) 비전 2050-베트남 2021~2030년 철도망 발전 계획 개정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0월 29일 총리결정문 Decision No.2404/QD-TTg를 통해 ‘비전 2050-베트남 2021~2030년 철도망 발전 계획’을 개정 승인
 - 기존 철도 효율화 및 신규 노선 건설을 병행 추진하며, 북남고속철(1,541km)과 하노이-광닌(124km) 노선이 정식 반영
 - * 라오까이-하이퐁, 비엔호아-붕따우, 하노이-동당 등 12개 신규 노선이 포함되어 2030년 이전 착공을 목표로 함

- 항만·공항·건조항·물류센터·도시철도 간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며, 남부 응이썬(Nghi Son)·히엡프억(Hiep Phuoc) 항만과 남부 롱탄(Long Thanh) 공항, 북부 노이바이(Noi Bai)·자빈(Gia Vinh) 공항을 잇는 노선이 새롭게 포함

□ 유망 품목

- (고속철) 차량(EMU), 신호·통신, 교류급전시스템, 역사 복합개발(TOD), 유지보수(MRO)
- (공항) 스마트 수하물처리(BHS) 및 보안검색, 항행안전시설, 공항 내 무인궤도차량(APM), 상업 시설 기획·운영 및 공항 IT 솔루션
- (항만) 대규모 준설 기술,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배후단지 연계 콜드체인 및 냉동물류센터

□ 진출전략

- ‘EPC+첨단기술+운영’ 통합 패키지 제안
 - 첨단기술과 운영 노하우, 상업 개발 모델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포지셔닝
 - 한국이 강점을 가진 유망 품목(차량, 신호·통신, 공항 IT, 자동화 등)을 핵심 시스템 공급자 역할 확보

□ 리스크

-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재원 조달구조의 확정 지연, 토지 수용 문제, 미성숙한 PPP 관련 법규의 불확실성 상존
 -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불안정 등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존재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반도체 소재(리드프레임 등)

- 선정사유**
- 삼성, 인텔, 앰코 등 글로벌기업의 현지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재 수요 증대
- 경쟁동향**
- 베트남 내 리드프레임·와이어 등 주요 패키징 소재는 일본, 대만, 중국 기업 중심 공급 구조이며, 현지 생산 기반은 미약
- 진출방안**
- 미국의 對중국 관세 조치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들이 한국 등 비(非)중국계로부터 부품 수급을 늘리려는 움직임 활용해 안정적 대체 공급원으로 포지셔닝

신재생에너지 및 ESS 기자재

- 선정사유**
-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시행 및 ESS 연계형 태양광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투자유치 정책 강화
- 경쟁동향**
- 2024년 기준 중국이 발전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공급국이며, JA Solar 등이 태양광 셀 생산공장 통해 시장 주도
- 진출방안**
-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 대상으로 통합 솔루션 제공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전장부품

- 선정사유**
- VinFast 등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며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현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추진
- 경쟁동향**
- 베트남 국내 전기차 1위 VinFast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공급망 진입을 위해 중국, 대만 등 여러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중
- 진출방안**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활용, 베트남 제조공장을 제3국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 공급 추진

고효율 전력장비(배터리, 변압기, UPS 등)

- 선정사유**
- Viettel, FPT 등 현지 대기업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해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장비 수요 급증
 - 금융,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에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음성·영상 인식, 챗봇 등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 경쟁동향**
- 중국이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주도하며,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2위를 차지
- 진출방안**
- 전력 안정화 스마트 솔루션 등 융합 시장 선점

의약품·의료기기

- 선정사유**
- 의약품 원료 및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높은 시장 잠재력
 - 경제 성장 및 중산층 확대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Sanofi, GSK, Terumo, Siemens 등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
- 진출방안**
- 외국 기업의 직접 유통이 제한된 의약품은 현지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공동 생산(JV) 등 협력 모델 구축
 - 성장세가 높은 치과용 장비 및 소모품 시장 집중 공략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인프라 EPC 및 운영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남고속철도, 국제공항 등 초대형 인프라 동시 추진• 항만 대형화 및 국제환적항 육성 전략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 부문별 수주 경쟁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차량·신호 시스템, 공항 IT·보안 시스템, 항만 자동화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핵심 시스템 공급자 역할을 확보 |

콜드체인 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채널이 확대되며 콜드체인 수요 증가• 콜드체인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태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ctic Wolf, Lotte Global, Lineage 등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콜드체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유통망 수요에 따른 정확한 창고 위치 선정이 중요 |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병원 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 디지털화 추진• 현지 병원의 디지털화가 더딘 상황으로, AI 기반 진단, 스마트 병원 솔루션,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등과 관련 효율성 높은 한국형 모델의 성공 가능성 다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민간병원인 Vinmec이 자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파트너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병원, 스타트업과 협력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PoC 진행을 통한 레퍼런스 구축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베트남 지역 KOTRA 주요사업

| 구분 | 주요 사업명 | 일시/장소 |
|------|---------------------------------|-------------|
| 소비재 | 2026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 무역사절단 | 3월/하노이, 호치민 |
| | 2026 베트남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 6월/하노이, 호치민 |
| | 2026 한-베 페스티벌 소비재 팝업스토어 | 8월/다낭 |
| | 베트남 소비재 종합 판촉전(K-Festival 2026) | 10월/호치민 |
| 산업 | 2026 동남아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 9월/하노이 |
| 프로젝트 | 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 | 미정/하노이 |
| 스마트팜 | 2026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 8월/호치민 |
| 환경 | 베트남 환경에너지산업전 연계 수출상담회 | 6월/하노이 |
| ICT | AW&ELECS 2026 전시 연계 수출 상담회 | 미정/호치민 |
| 해외투자 | 호치민시와 진출 한국기업간 대화 | 미정/호치민 |
| |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 5월/호치민 |
| | 베트남 중부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미정/다낭 |
| ESG | 2026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세미나 | 4월/하노이 |
| | Meet Korea 2026 | 미정/하노이 |
| 해외취업 | 베트남 안전·취업박람회 | 미정/하노이 |
| | 베트남 기취업자 간담회 | 미정/하노이 |
| | 베트남 기취업자/유학생 간담회 | 미정/다낭 |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 상반기 | 5년마다 실시 |
| 제16대 국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 | 3월 15일 | 임기 2026~2031년 |
| 제16대 국회 1차 정기회의 | 선거 후 60일 이내 | 국회의장·총리 선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2026 베트남 통계연감 발간 | 6월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의류, 섬유 및 섬유 기술 무역 전시회 (VIATT 2026) | 2월 25~27일 | Messe Frankfurt(H/K) |
| 2026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VIETNAM EXPO 2026) | 4월 1~4일 | VINEXAD – Exhibition & Event |
| 2026 베트남 하노이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InterPet Hanoi 2026) | 4월 17~19일 | EVENTURE EVENT & EXHIBITION JSC |
| 2026 베트남 호치민 글로벌 소싱페어 전시회 (Global Sourcing Fair Vietnam 2026) | 4월 24~26일 | Magic Exhibitions HK Ltd.(Global Sources) |
| 2026 베트남 하노이 의료기기 전시회 (VIETNAM MEDIPHARM 2026) | 5월 6~9일 | VIETFAIR, VIMEDIMEX VN |
|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반려동물용품 전시회 PET(FAIR VIETNAM 2026) | 6월 | VEAS |
|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키즈 전시회 (Vietnam HCMC Int'l Maternity, Baby & Kids Fair 2026) | 6월 4~7일 | COEX & SEGEFAIRS |

| 주요 행사 | 일시(잠정) | 비고 |
|---|-----------|---|
| 2026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MTA VIETNAM 2026) | 7월 | INFORMA MARKETS |
| 2026 베트남 호치민 코스모뷰티 전시회 (vietbeauty & cosmobeauté 2026) | 7월 23~25일 | informamarket |
| 2026 베트남 하노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전시회(VME 2026) | 8월 | RX Tradex Vietnam |
| 2026 베트남 호치민 치과 전시회 (VIDEC 2026) | 8월 | VIETNAM ODONTO – STOMATOLOGY ASSOCIATION(VOSA) |
| 2026 베트남 호치민 식음료 및 식품가공기기 전시회 (Viet Food and Beverage Propack 2026) | 8월 6~8일 | VINEXAD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JSC |
| 2026 베트남 호치민 의료, 병원 및 제약 전시회 (Vietnam Medi-Pharm Expo 2026) | 8월 11~13일 | VINEXAD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JSC |
| 2026 베트남 하노이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VIDEC 2026) | 8월 20~22일 | Vietnam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 Cogress 베트남 치과 협회 |
| 2026 베트남 호치민 펫 산업 전시회 (International Pet Festival & Expo VietNam 2026) | 8월 28~30일 | eventure |
| 2026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NEPCON VIETNAM 2026) | 9월 | RX Tradex |

〈작성자〉

| 연번 | 작성자 | 직책 | 소속 | Tel | Email |
|----|-----|-----|---------|-----------------------|---------------------------|
| 1 | 유상철 | 과장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422) | mj.yoo@kotra.or.kr |
| 2 | 김민정 | 차장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210) | mj.kim@kotra.or.kr |
| 3 | 지혜 | 과장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400) | mirandacode@kotra.or.kr |
| 4 | 김경돈 | 팀장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164) | kimkdon@kotra.or.kr |
| 5 | 이여람 | 관세사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620) | yeoram@kotra.or.kr |
| 6 | 박성민 | 대리 | 하노이 무역관 | +84-24-3946-0511(336) | qkrtjdals7310@kotra.or.kr |

2026
베트남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41-6 (95320)